

◆ 발간등록번호 11-1400119-000312-01



고택과 어우러진 삶이 담긴 정원

Gardens Reflecting Life  
; the Gardens Enveloping Traditional Houses in Harmony



고택과 어우러진 삶이 담긴 정원

Gardens Reflecting Life  
; the Gardens Enveloping Traditional Houses in Harmony



비매품/무료

9 791187 031932

ISBN 979-11-87031-93-2

고택과 어우러진 삶이 담긴 정원

고택과 어우러진 삶이 담긴 정원



---

# 고택과 어우러진 삶이 담긴 정원

Gardens Reflecting Life  
; the Gardens Enveloping Traditional Houses in Harmony

---

\* 사진과 그림 제공

© 이동협 pp. 38-39, 41, 42-43, 54-55, 58-59, 66-67, 72-73, 82, 92-93, 102-103, 104-105, 106-107, 113, 115, 116, 118-119, 128-129, 132, 142, 144-145, 146-147, 152-153, 157, 159

© 조현진 pp. 10-11, 12-13, 25, 26-27, 34-35, 64-65, 68-69, 71, 76-77, 88-89, 95, 96-97, 100-101, 110-111, 117, 124-125, 133, 136-137, 150-151, 162-163

## 고택과 어우러진 삶이 담긴 정원

Gardens Reflecting Life

; the Gardens Enveloping Traditional Houses in Harmony

-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
- 발행인 국립수목원장 이유미
- 발행처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 집필 이정희, 송유진, 이문규, 전근녀, 진혜영, 이해주
- 그림 조현진
- 사진 이동협, 전근녀
- 캐드 도면 작성 주이슬
- 편집·제작 GeoBook

© 국립수목원 2017

[www.kna.go.kr](http://www.kna.go.kr)

[www.facebook.com/kna990524](https://www.facebook.com/kna990524)

[twitter.com/kna99524](https://twitter.com/kna99524)

· 발간등록번호 11-1400119-000312-01

· ISBN 979-11-87031-93-2 93520

비매품

## 고택과 어우러진 삶이 담긴 정원

Gardens Reflecting Life

; the Gardens Enveloping Traditional Houses in Harmony



프랑스 인류학자 샤를 바라(Charles Louis Varat, 1842~1893)는 그의 『조선기행』에서 조선의 정원에 대해 “조선의 시골 풍경은 그 자체로 확대된 조선의 정원 같다.”라고 평하였다. 조선시대의 정원은 오늘날 정원으로 인식되는 인공적으로 꾸며져 담으로 구분된 공간만이 아닌, 집 안의 뜰과 집 바깥의 산천 및 농경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발달해온 우리 정원문화는 일제강점기를 통해 근대화를 거치고 현대로 들어서는 파란의 역사 속에서 우리 생활양식과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문화적 고유성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세기에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간 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세계화의 바람이 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문화에 대해 알고 기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정원문화를 발전시켜 우리만의 특색을 찾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해졌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정원과 사찰정원은 물론,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민가정원을 연구해오면서 과거로부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만의 특색을 찾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조선후기의 민가정원들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전통정원의 편린들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고택의 정원들이기 때문이다.

2017년도에는 100년 이상 된 고택과 어우러진 정원 12곳을 조사하여 조선후기부터 근대까지 관리 및 유지가 되어온 정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식물의 식재상황을 반영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택과 어우러진 삶이 담긴 정원』을 발간하게 되었다. 단순히 문화재로서 박제된 대다수의 고택들과 달리, 이 책에 선정된 고택들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정원주의 삶과 철학이 담긴 곳들이다. 이 책을 통해 고택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정원과 식재된 식물들을 살펴봄과 고택의 정원에 담긴 과거 정원문화의 특성과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택에서의 삶이 담겨있는 민가정원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을 연결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원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대외적으로 정원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직도 발굴과 조사를 기다리는 전국 곳곳의 민가정원들이 있음을 되새기며, 보다 많은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17년 10월  
국립수목원장



차례

머리말 ..... 4

일러두기 ..... 8

쌍산재 · 자신을 세상에 크게 드러내지 않은 선비의 정원 ..... 10

운철하고택 · 사랑채 앞 화계가 돋보이는 정원 ..... 34

백운동정원 · 다산이 반한 정원 ..... 46

오현고택 · 노정원사를 만날 수 있는 정원 ..... 64

존재고택 · 계류를 따라 심긴 울창한 동백나무 숲 ..... 76

소우당고택 · 울창한 산길을 걷는 듯 멋스런 별당정원 ..... 88

연정고택 · 팽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호젓한 연지의 자연미 ..... 100

삼가현고택 · 고즈넉한 방지가 아름다운 정원 ..... 110

박진사고가 · 토담의 문양과 덩굴식물이 돋보이는 정원 ..... 124

사운고택 · 뒷산 노송과 어우러져 기품이 있는 정원 ..... 136

채원병가옥 · 가려짐과 드러남의 미학 ..... 150

학인당 · 땅속으로 이어진 돌계단 아래 우물이 독특한 정원 ..... 162

부록 ..... 172

참고문헌 ..... 190

## 일러두기

- 식물목록의 국명, 학명, 과명, 재배종 여부는 산림청의 국가표준식물목록을 따랐다.
- 고문헌 등재 여부는 식물 관련 주제를 담은 50종의 대표성 있는 고문헌<sup>참조1</sup> 기록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각 고문헌에 기록된 식물명에 대한 해석은 9종 관련 논문<sup>참조2</sup>을 참고하였다.
- 부록편 식물목록에는 12개소 민가정원에서 조사된 식물, 고문헌에서 언급된 식물 정보와 식물의 쓰임새(용도)를 정리하였다.
- 식물의 용도는 Lee, T.B. 1976. Vascular Plants and their uses in Korea. Bull. Kwanak Arb. 1:1-137 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식재도면의 일부는 문화재청에서 협조한 『한국전통가옥 평면도』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 참조 1 · 50종 고문헌 및 회화 목록

번호	문헌명	저자	년도	분류군수
1	경도잡지	유득공	-	8
2	계산기정	이해응	1804	7
3	고사신서	서명응	1771	21
4	고시조천수선	심재완	-	30
5	궁궐지	-	-	8
6	규합총서	빙허각 이씨	1809	20
7	남한박물	이형상	1704	83
8	농정신편	안종수	1885	16
9	다산초당도	초의선사	1812	15
10	담화	이옥	1803	9
11	동국이상국집	이규보	1251 증보	32
12	동궐도	-	-	5
13	만○국사산	-	-	17
14	몽경당일사	서경순	1855	7
15	물보	이재휘	1802	36
16	보한집	최자	1254	13
17	비해당48영	안평대군	-	25
18	사의당지	홍경모	1824	31
19	산림경제	홍만선	-	31
20	삼국사기	김부식	1145	31
21	삼국유사	일연	1281	31
22	성호사설	이익	1761 추정	4
23	세종실록지리지	-	1454	35
24	소쇄원 사십팔영	김인후	-	9
25	소쇄원도	-	-	10
26	송강집	정철	1894	12

27	송남잡지	조재삼	-	75
28	순원화궐잡설	신경준	-	24
29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행, 윤희보, 신공제, 홍언필, 이사균	1530	29
30	심상규 연작	-	-	12
31	양화소록	강희안	1474	47
32	옥호정도	-	-	8
33	위암화원지	장지연	-	84
34	위원화궐지	장지연	-	8
35	조선산 야생식용식물	조선총독부	1942	76
36	조선산 야생약용식물	조선총독부	1936	74
37	임원경제지	서유구	-	89
38	전라구례오미동가도	-	-	4
39	정다산전서	-	-	52
40	제주계록	-	1846~1884	14
41	조선왕조실록	-	-	32
42	증보산림경제	유종임	1766	24
43	지봉유설	이수광	1614	35
44	책거리병풍도	-	-	6
45	찰요신서	박홍생	1244	11
46	탐라지	이원진	1653	67
47	파한집	이인로	1260	11
48	한정록	허균	1681	8
49	화암수록	유박	-	67
50	화하만필	문일평	-	24

### 참조 2

- 강민구. 2013. 유서(類書)에 나타난 조선 지식인의 화훼(花卉)에 대한 인식. 동방한문학, 56(0): 39-73.
- 김규섭, 이재근. 2014.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나타난 정원조영 연구 - 「이운지(怡雲志)」와 「상택지(相宅志)」를 중심으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1): 22-30.
- 김미옥. 2010. 조선시대 지피식물에 관한 연구 : 옛 그림 및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서울.
- 김승민. 2014.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이용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2): 134-147.
- 배상선, 심우경. 1989. 조경식물의 상징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8(1): 281-313.
- 신상섭, 노재현. 2009. 「지봉유설(芝峯類說)」로 본 이수광(李守光)의 조경식물 인식 및 가치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1-10.
- 신상섭. 2011. 조선 후기 상류주택 사의당(四宜堂)의 공간체계와 조경문화.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2): 19-27.
- 이창숙, 여성희, 정소연. 2016.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제주도 전통식물의 통시적 연구. 한국자원식물학회지, 29(2): 225-234.
- 조창록. 2013. 문헌 자료를 통해 본 조선의 원예 문화. 동방한문학, 56(0): 73-96.

# 쌍산재

.....  
자신을 세상에 크게 드러내지 않은  
선비의 정원  
.....





## 소박한 대문이 보여주는 집안의 철학

쌍산재는 구례군 상사마을에 있다. 소재지는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632이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해주 오씨 5대손 오경영 씨가 살고 있으며, 십 년 전부터 한옥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해주 오씨 오현우 응이 조선시대에 지었는데 자신을 세상에 크게 드러내지 않는 전형적인 유학자의 모습이 집과 정원의 규모에 비해 작은 대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점진적으로 정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정원의 이름 '쌍산'은 현재 주인의 고조부 호에서 유래했으며, 호서정은 증조부, 경암당은 할아버지의 호를 붙인 건물로 조상들의 삶이 집 안 곳곳에 배어있다.



## 당몰샘

상사마을은 장수마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장수의 비결은 당몰샘으로 알려져 있다. 당몰샘에는 ‘천년고리 감로영천 千年古里 甘露靈泉’이라는 편액이 있는데, ‘1000년 된 오랜 동네에 있는 감로수와 같은 신비로운 샘물’이라는 뜻으로 지리산 약초 뿌리 녹은 물이 흘러든다고 전해진다. 옛날 좋은 물이 있는 명당을 찾아나선 사람이 미세한 약저울로 전국에 좋다고 평이 난 물의 무게를 재고 다녔는데, 이 당몰샘 물이 제일 무거워 그 약초 성분을 믿고 상사마을에 터

를 정했다고 한다. 당몰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마을 사람들의 식수로, 빨래 등의 생활용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샘터에서는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러 와서 온갖 살아가는 이야기를 펼치기도 했다. 고조부는 집 안 사랑채 앞에 있었던 당몰샘을 마을 주민들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러 담장을 다시 둘러 집 밖으로 두었다고 한다. 사랑채 정원은 좁아졌지만 이웃을 배려한 집안 어른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좁은 정원

남자들의 공간이자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채 정원은 다른 고택에 비해 유독 좁다. 이웃들이 편하게 당몰샘을 이용하도록 배려하면서 공간이 좁아졌다. 좁은 정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못도 있고 오래된 모과나무, 대추나무, 유자나무, 감나무 등의 유실수뿐만 아니라 백목련, 자목련, 배롱나무, 영산홍, 백서향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있다.





## 안채 뒤주



안채 왼쪽에는 쌀 20가마가 들어가는 나무로 만든 뒤주가 자리하고 있다. 옛날에 봄에는 보리를, 가을에는 쌀을 채워두고 식량이 부족한 이웃에게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이자 없이 받아 채워두게 했다. 어려운 이웃을 드러내지 않고 도왔던 해주 오씨 집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엿볼 수 있다.

▪ 장독대 주변으로 살구나무, 석류나무, 오갈피나무, 골담초, 히어리, 영도나무, 초피나무, 백서향, 영산홍이 식재되어 있다. ▶





## 그들의 미학

남도 정원에서는 왕대 숲을 종종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왕대 숲은 집 뒤편에 자리하여 한겨울 북서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 쌍산재의 왕대 숲은 집안 중앙에 위치하여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돌계단을 따라 거닐게 되어있다. 왕대 아래는 차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어 더욱 깊은 그늘을 드리우며 앞의 정원과 다른 느낌을 부여한다. 죽로차밭을 지나면 글을 읽는 집안 어른의 공간인 서당채로 향한다.

### 죽로차

▪ 죽로차는 대밭에서 이슬을 받고 자란 차나무에서 딴 잎으로 만든 한국 전통차이다.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품으로 바친 고급 차로 주로 5월 중순 이후 대나무 숲에서 자란 차잎을 따 만든다.

▪ 대나무는 뿌리가 흰으로 퍼지는 반면 차나무는 수직으로 뻗는 성질을 지녔다. 양분을 빨아들이는 지점이 서로 다르다. 차나무는 그늘을 좋아하는데, 대숲이 위로 솟아 그늘을 드리우고 이슬로 적셔 윤기를 더해주니 대숲차를 으뜸으로 꼽는 이유다.

(정민, 2015: 261-262) ▶





## 밝은, 생산의 공간



▪ 잔디밭 옆으로 서당을 향해 난 좁은 폭의 길 왼쪽에는 작약, 오른쪽에는 모란을 심었다. ▲

어두운 왕대 숲을 지나면 갑자기 푸른 하늘과 잔디밭이 펼쳐진다. 이 땅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토속작물을 심었던 채마밭이었다. 옛날에는 땅을 비워두고 작물을 심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는다고 여겼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한옥 스테이를 시작하면서 편평한 이 공간은 잔디밭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낮에는 자연 속에서 맘껏 뛰어 놀 수 있고 밤에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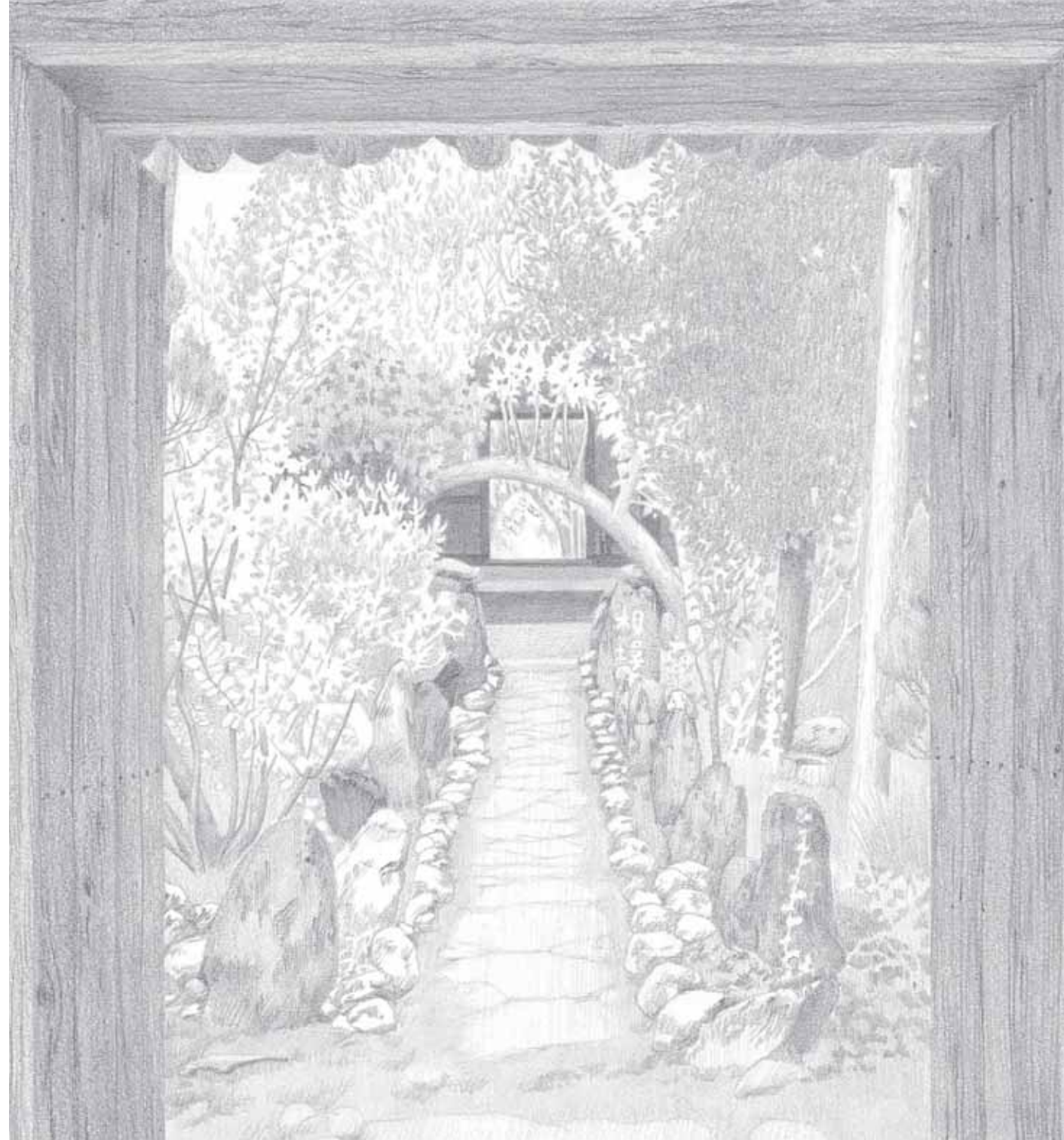
## 서당채 앞 정원



서당채는 집안 어른이 글을 읽고 자제들이나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곳으로 잔디밭을 지나 '가정문'을 통과하여 나타나는 독립적인 공간이다. 길을 꺾어 가정문을 통과하면 흰빛을 띠는 차돌이 경계석으로 놓여진 좁은 길이 서당으로 안내한다. 그 길에는 휘어진 사철나무가 인상적이며 서당채 창으로 살짝 보이는 배경이 그림 같다. 서당채로 다가가 뒤를 돌아보면 두 개의 직사각형 잔디밭이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가장자리로는 식물이 빼곡히 식재되어 있어 밖에서는 서당채가 드러나지 않는다.

▪ 서당채로 가는 길에는 흰빛을 띠는 차돌이 많은데, 이 지역 돌의 특징이라고 한다. 흰색 돌은 전기가 없던 시절, 달이 뜨면 빛을 반사하여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 서당채 앞에는 다양한 형태의 세워 놓은 돌이 있고, 그 위에는 다른 돌이 붙여져 있다. 책을 읽고 정원 가꾸는 것이 일상이었던 할아버지는 타 지방에 들러 특별한 돌이 있으면 가져와 기존의 돌 위에 붙여 놓으시곤 하셨다. ▶





외별당공간

## 서당채 옆 방지원도

서당채 옆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만든 네모난 연못, 그 안에 둥근 섬이 놓인 방지원도方池圓島를 만난다. 둥근 섬에는 강릉 오죽헌에서 가져다 심었다는 ‘오죽’이 식재되어 있다. 연못으로 휘어진 용버들과 가장자리의 왕버들은 물가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연못 뒤에 놓인 투박한 다섯 개의 돌은 이곳에서 잠시 앉아서 연못을 감상하게 한다.





## 사도저수지로 가는 길



정원의 서쪽에는 사도저수지가 있다. 서당에서 나와 서쪽 방향으로 난 좁은 길의 끝에는 영벽문이 있다. 이 문을 통과하면 무엇이 나올까 궁금하여 문을 열면, 뜻밖에 또 시원하게 열린 공간인 사도저수지를 마주하게 된다.

### 귀룽나무

*Prunus padus* L.

▪ 경암당 앞에는 웅장한 귀룽나무 두 그루가 멋진 수형을 자랑하고 있다. 숲의 계곡부에서 자라는 자생지의 환경을 반영하여 귀룽나무 앞에는 배수로가 흐르고 있다. 아래로 처지는 가지가 물가와 잘 어울린다. 귀룽나무는 버드나무가 싹을 틔우는 이른 봄 연둑빛으로 일찍 봄을 알리고, 봄에는 하얀 꽃의 향기가, 가을에는 노란 단풍이 멋스럽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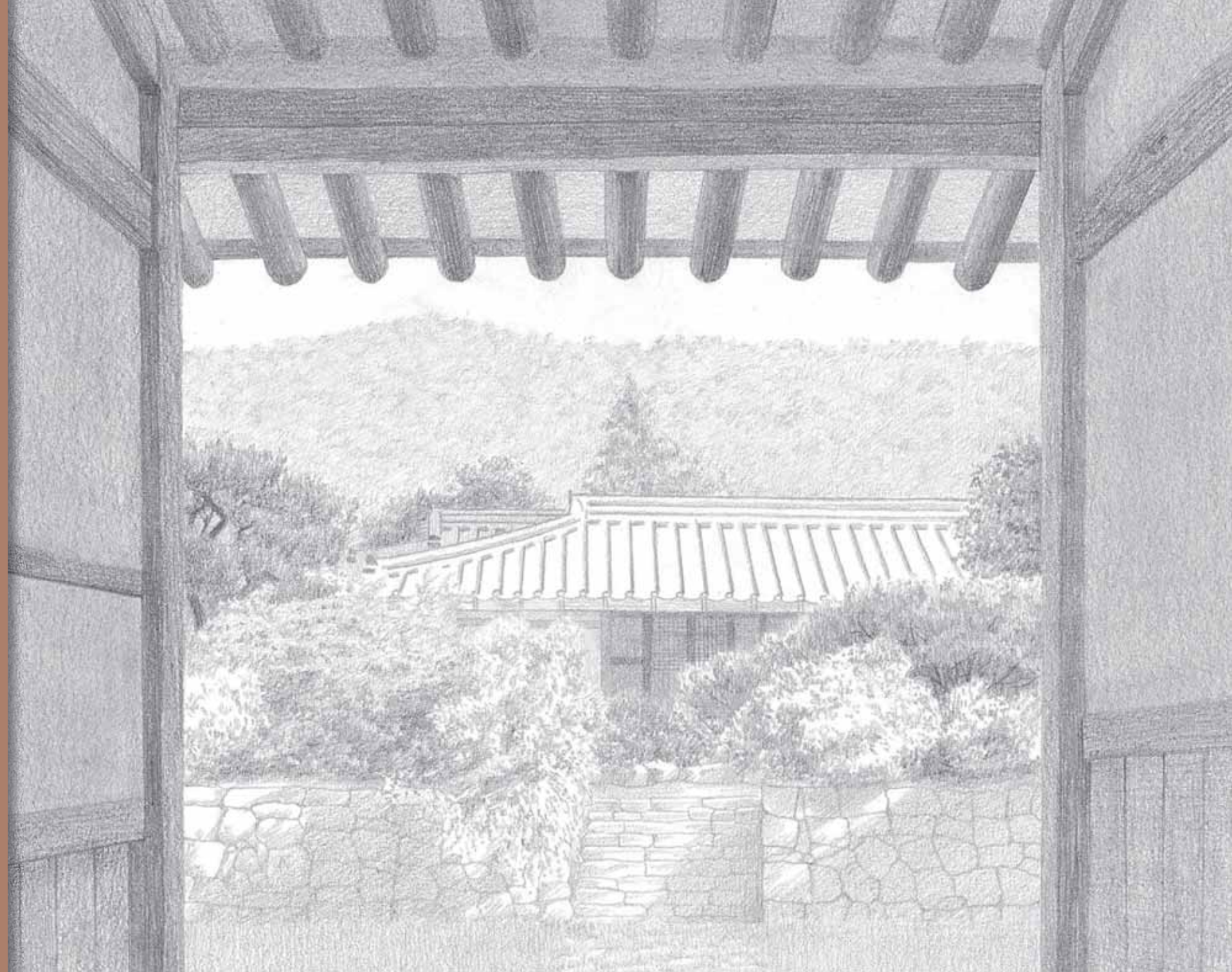


-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 개비자나무 *Cephalotaxus koreana* Nakai
- 개산초 *Zanthoxylum planispinum* Siebold & Zucc.
- 골담초 *Caragana sinica* (Bu'choz) Rehder
- 광나무 *Ligustrum japonicum* Thunb.
- 구기자나무 *Lycium chinense* Mill.
- 귀룽나무 *Prunus padus* L.
- 구지뽕나무 *Cudrania tricuspidata* (Carr.) Bureau ex Lavallée
- 나한백 *Thujiopsis dolabrata* (L.f.) Siebold & Zucc.
- 남천 *Nandina domestica* Thunb.
- 논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
-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 닻나무 *Broussonetia kazinoki* Siebold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당단풍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 대추나무 *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
-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
- 동백나무 '난반코' *Camellia japonica* 'Nanbanko'
- 두릅나무 *Aralia elata* (Miq.) Seem.
- 두충 *Eucommia ulmoides* Oliv.
- 리기다소나무 *Pinus rigida* Mill.
- 마삭줄 *Trachelospermum asiaticum* (Siebold & Zucc.) Nakai
- 만첩홍도 *Prunus persica* f. *rubroplena* C.K.Schneid.
- 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 Zucc.
- 명자나무 *Chaenomeles speciosa* (Sweet) Nakai
- 모과나무 *Pseudocarya sinensis* (Thouin) C.K.Schneid.
- 모란 *Paeonia suffruticosa* Andr.
- 무궁화 *Hibiscus syriacus* L.
- 무화과나무 *Ficus carica* L.
- 박태기나무 *Cercis chinensis* Bunge
- 밤나무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 백당나무 *Viburnum opulus* var. *calvescens* (Rehder) Hara
- 백목련 *Magnolia denudata* Desr.
- 뱀나무 재배품종 *Prunus* cv.
- 보리수나무 *Elaeagnus umbellata* Thunb.
- 뽕나무 *Morus alba* L.
-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 산뽕나무 *Morus bombycis* Koidz.
-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 산철죽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év.) Sugim.
- 살구나무 *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
- 삼나무 *Cryptomeria japonica* (L.f.) D.Don
- 상수리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 서향 *Daphne odora* Thunb.
- 서향 '아우레오마르기나타' *Daphne odora* 'Aureomarginata'
- 석류나무 *Punica granatum* L.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 습대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 아까시나무 *Robinia pseudoacacia* L.
- 영도나무 *Prunus tomentosa* Thunb.
- 영산홍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 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 오죽 *Phyllostachys nigra* (Lodd.) Munro
- 왕대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Zucc.
- 왕벚나무 *Prunus yedoensis* Matsum.
- 용버들 *Salix matsudana* f. *tortuosa* Rehder
- 유자나무 *Citrus junos* Siebold ex Tanaka
- 유카 *Yucca gloriosa* L.
- 은행나무 *Ginkgo biloba* L.
- 울나무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 자두나무 *Prunus salicina* Lindl.
- 자목련 *Magnolia liliflora* Desr.
- 장미 *Rosa* cv.
- 주엽나무 *Gleditsia japonica* Miq.
- 쥐똥나무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 켈레꽃 *Rosa multiflora* Thunb.
- 차나무 *Camellia sinensis* L.
- 찰느릅나무 *Ulmus parvifolia* Jacq.
-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L.) DC.
- 치자나무 *Gardenia jasminoides* Ellis
- 탕자나무 *Poncirus trifoliata* Raf.
- 팽나무 *Celtis sinensis* Pers.
- 편백 *Chamaecyparis obtusa* (Siebold & Zucc.) Endl.
- 푸조나무 *Aphananthe aspera* (Thunb.) Planch.
- 피나무 *Tilia amurensis* Rupr.
- 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L.
- 황매화 *Kerria japonica* (L.) DC.
- 회양목 *Buxus koreana* Nakai ex T.H.Chung & al.
- 히어리 *Corylopsis gotoana* var. *coreana* (Uyeki) T.Yamaz.



# 운철하고택

.....  
사랑채 앞 화계가 돋보이는 정원  
.....





입구

## 좋은 터, 뛰어난 풍치

윤철하고택은 공재 윤두서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해남군 초호 마을에 있다. 소재지는 행정구역상 전남 해남군 현산면 초호길 43이며, 국가민속문화재 제153호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 등록 당시에는 영화진흥공사 등 여러 문화 관련 기관의 기관장을 역임하였던 윤탁(1933~2014) 씨의 소유였으나, 윤탁 씨가 별세한 이후 동네 주민 윤계하 씨가 관리한다고 한다.

윤철하고택은 조선 말기 호남 지방 상류주택 대가족의 생활상이 잘 간직된 고택으로, 1906년에 건립되었다. 가옥은 남향으로 지어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둘러져 있고, 앞으로는 너른 들이 펼쳐져 있는 배산임수형 입지를 지닌다. 공간은 크게 사랑마당과 안마당, 후원으로 구성되며, 경사가 심한 터를 3단으로 나누어 낮은 앞 터에서 높은 위 터까지 대문간채, 사랑채, 중문간채, 안채와 별당채, 후원을 차례로 배치하였다.

고택의 대문 앞에는 주차장으로 쓰이는 넓은 공터가 있는데, 가장자리에 심긴 세 그루의 굴거리나무가 눈에 띈다. 굴거리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의 섬과 전라도에 분포하는 난대성 수종으로, 잎이 사철 반들거리고 싱그러우며, 겨울철에는 붉은 잎자루와 흑자색 열매가 돋보여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이다. 한자로는 교양목交讓木이라 불렀는데, 이는 봄철에 새잎이 나면 겨울을 난 작년의 잎이 떨어진다는 특성이 마치 옛사람이 새로 온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굴거리나무  
*Daphniphyllum  
macropodum* Miq. ▶





## 사랑채 앞 화계

문간을 지나면 너른 마당 건너편으로 사랑채가 보인다. 사랑채의 기단 앞에는 폭이 넓은 화계를 조성하였다. 본래 사랑마당에는 축사가 몇 채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사라져 잔디밭이 되었다. 문간채에서 화계까지 뺀 푸른 마당은 매우 시원한 느낌을 주고, 사랑채의 지붕 뒤로 보이는 야산의 등적함과 잘 어울린다. 축대의 가운데에는 널따란 돌계단이 있는데, 돌계단의 왼쪽으로 늘어진 개나리는 이른 봄에 드러낼 화사함이 벌써 눈에 선하다.

화계 위에는 동백나무, 백목련, 영산홍, 수국, 개나리 등의 화목과 따뜻한 남도에서만 볼 수 있는 유카, 협죽도, 굴

거리나무, 붉가시나무 같은 관상수들을 식재하였고, 그 사이사이에 우단동자꽃과 접시꽃 등 초화류를 심었다. 화계에 심긴 여러 나무 중 특히 계단 오른쪽에 크게 자란 회양목이 인상적이다. 회양목은 본디 생육속도가 매우 느려 “회양목은 1년에 한 치씩 자라는데, 윤년에는 액을 맞아 세 치가 줄어든다.”라는 속설이 있고, 또 이에 빗대어 일의 진척이 도무지 없을 때 ‘황양액운黃楊厄閏’이라는 사자성어를 쓰기도 한다. 그런데 이만한 크기와 형상을 갖추었으니 자라는데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을지 새삼 놀랍다.





## 담장을 장식하는 화단



▲ 금목서 *Osmanthus fragrans* var. *aurantiacus* Makino

사랑채의 서쪽 편으로 돌아 들어가면 사랑채 후면에 안채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난다. 안채로 가는 길을 따라 조성된 담장 아래에는 소박한 화단이 조성되어 영산홍, 개나리, 명자나무 등의 관목성 화목류가 심겨 있고, 그 사이에 설악초, 봉선화 등의 일년생 초화류들이 흐드러지게 심겨 있다. 길 끝에는 돌계단이 있고 그 위에는 안마당으로 통하는 중문채가 있다. 중문채를 지나면 나타나는 안마당은 안채와 안별당채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는 아무것도 심겨 있지 않은 작업공간으로 쓰이지만, 본래는 안마당의 중앙에서부터 별당채 남단의 담까지 이어지는 L자의 큰 화단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안마당의 화단은 사라졌지만, 중문채 동쪽의 담장을 따라 후원까지 연결된 화단은 남아 있다. 봄철에 화려한 꽃이 피는 명자나무와 영산홍이 중문채 바로 옆에 심겨 있고, 그 옆으로는 가을철마다 바람에 은은한 향을 실어 보내는 금목서가 한 그루 서 있다. 금목서 아래에는 만년청의 푸른 잎이 반들거린다. 또 블루베리와 같은 속의 자생종으로 사시사철 상록성의 잎을 자랑하는 모새나무도 한 그루 심겨 있다. 이외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개나리, 명자나무, 애기동백 등의 화목류와 유카, 원추리, 옥잠화, 큰금계국 등 숙근초들이 심겨 있다.





후원

## 채마밭의 풍족함

화단을 따라 안채의 북쪽으로 향하면 넓은 후원이 보인다. 후원은 담장을 따라 키 큰 은행나무와 동백나무들이 둘러져 아늑한 느낌이다. 특히 동백나무들은 그 수고와 줄기의 직경에서 상당한 세월을 느낄 수 있다. 이 외에 후원에는 감나무, 매실나무, 무화과나무, 비파나무를 비롯한 여러 과수와 옷나무, 뽕나무, 꾸지뽕나무 같은 특용수들이 식재되

어 있고, 또한 각종 채소들이 심긴 너른 텃밭이 조성되어 있어 매우 풍족한 느낌을 준다. 후원 북쪽, 키 큰 오동나무와 무성한 동백나무 사이로는 협문이 하나 숨겨져 있다. 문을 나서면 길과 접해 있는데, 접근이 어렵고 구조가 복잡한 사랑채 뒤편의 중문채 대신 이 문을 통해서 집안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들여오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된다.





## 윤철하고택 식재도면



## 윤철하고택 식물 목록

-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 개나리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 개비자나무 *Cephalotaxu koreana* Nakai
- 구기자나무 *Lycium chinense* Mill.
- 굴거리나무 *Daphniphyllum macropodum* Miq.
- 금목서 *Osmanthus fragrans* var. *aurantiacus* Makino
- 팥망나무 *Ilex crenata* Thunb.
- 구지뽕나무 *Cudrania tricuspidata* (Carr.) Bureau ex Lavallée
- 노박덩굴 *Celastrus orbiculatus* Thunb.
- 누리장나무 *Clerodendrum trichotomum* Thunb.
- 능소화 *Campsis grandiflora* (Thunb.) K.Schum.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돈나무 *Pittosporum tobira* (Thunb.) W.T.Aiton
-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
- 등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 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 Zucc.
- 멀구슬나무 *Melia azedarach* L.
- 명자나무 *Chaenomeles speciosa* (Sweet) Nakai
- 모새나무 *Vaccinium bracteatum* Thunb.
- 목련 *Magnolia kobus* DC.
- 무화과나무 *Ficus carica* L.
- 백목련 *Magnolia denudata* Desr.
- 붉가시나무 *Quercus acuta* Thunb.
- 붉은피라칸타 *Pyracantha coccinea* M.Roem.
- 비파나무 *Eriobotrya japonica* (Thunb.) Lindl.
- 뽕나무 *Morus alba* L.
-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 산철쭉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év.) Sugim.
- 송아 *Hedera rhombea* (Miq.) Bean
- 수국 *Hydrangea macrophylla* (Thunb.) Ser.
- 애기등백 *Camellia sasanqua* Thunb.
- 앵도나무 *Prunus tomentosa* Thunb.
- 영산홍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 영춘화 *Jasminum nudiflorum* Lindl.
-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Uyeki
- 옥매 *Prunus glandulosa* f. *albiplena* Koehne
- 옷나무 *Rhus verniciflua* Stokes
- 유카 *Yucca gloriosa* L.
- 은행나무 *Ginkgo biloba* L.
- 이데 *Pseudosasa japonica* (Siebold & Zucc. ex Steud.) Makino
- 이스라엘지 *Prunus japonica* var. *nakaii* (H.Lév.) Rehder
-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 쥐똥나무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 차나무 *Camellia sinensis* L.
- 참죽나무 *Cedrela sinensis* Juss.
- 치자나무 *Gardenia jasminoides* Ellis
- 팽나무 *Celtis sinensis* Pers.
- 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L.
- 협죽도 *Nerium oleander* L.
- 회양목 *Buxus koreana* Nakai ex T.H.Chung & al.



# 백운동정원

다산이 반한 정원





## 옥판봉의 상쾌한 기운

백운동정원은 월출산의 남쪽 자락으로 흐르는 계곡에 자리잡은 별서정원으로, 원주 이씨 집안의 연년 이담로가 17세기 중후반경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년 이후 13대를 이어 원주 이씨 가문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 경영한 곳이다. 백운동터는 월출산을 배산으로, 계곡의 양옆 능선을 청룡과 백호로, 정원 앞의 언덕을 안산으로 지닌 전형적인 명당인데, 그 풍광이 매우 좋아 이담로가 별서를 짓기 이전에도 16세기에 해암 김응정이라는 인물이 정자를 지어 경영하였다고 한다. 별서를 지은 이후에는 여러 이름있는 문인이 그 풍광을 주제로 제목을 붙여 시를 지었다. 시를 지은 여러 인물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이다. 다산은 1812년 9월 12일 제자 초의 의순, 윤동과 함께 월출

산에 등반하러 갔다가 끝내 등정하지 못하고 하산하던 중 백운동에 들러 하룻밤을 묵었다. 백운동에서의 하루를 잊지 못한 정약용은 백운동의 12승경을 13편의 시로 묘사하고, 초의에게 백운동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도록 하여 이를 『백운첩』으로 엮어냈다. 이 시첩은 세월의 풍파와 6.25 전쟁을 거치며 훼손된 백운동의 복원과 역사 연구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정약용이 묘사한 백운동의 첫 번째 승경은 옥판상기玉版爽氣, 즉 옥판봉의 상쾌한 기운이다. 옥판봉은 원림 너머로 보이는 월출산 구정봉의 서남쪽 봉우리로, 백운동 인근 일대에 펼쳐진 차밭 위로 우뚝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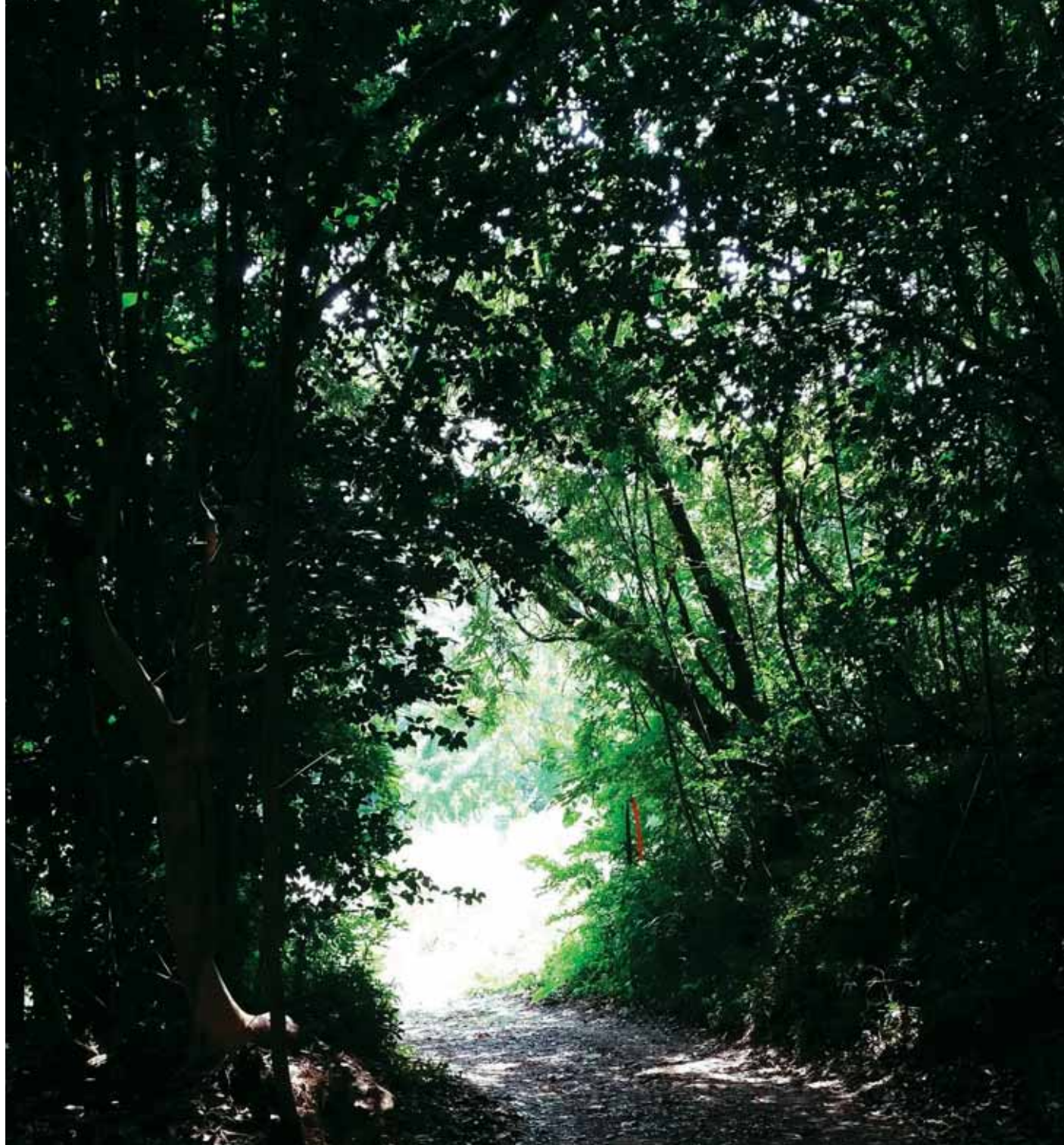


## 서리에 굴하지 않는 녹색 그늘



백운동 별서로 들어가는 오솔길의 양옆에는 백운동정원의 외원에 포함되는 상록수림이 펼쳐져 있다. 동백나무와 비자나무 등이 무성하게 늘어선 이 숲이 오솔길에 드리우는 그늘을 다산은 백운동의 제2경으로 쳤다. 길 따라 무성한 동백나무의 세한을 이겨내는 잎과 늦겨울부터 이른 봄에 길 따라 선홍색으로 피는 동백꽃의 아름다움은 담헌 이하곤 등 백운동을 방문한 많은 선비들도 인상 깊게 기록하였다.

상록수림대의 풍광 외에도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백운동이라고 음각되어 있는 바위가 있다. 안운마을 방향에서 시작하는 진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이 바위의 글씨는 별서를 지은 연년 이담로가 직접 쓴 것이라고 전해진다. 음각한 글씨는 시야에 잘 포착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백운동의 경우는 들어오는 방향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나가는 방향으로 시야에서 다소 벗어난 위치에 새겨져 있는 것이 특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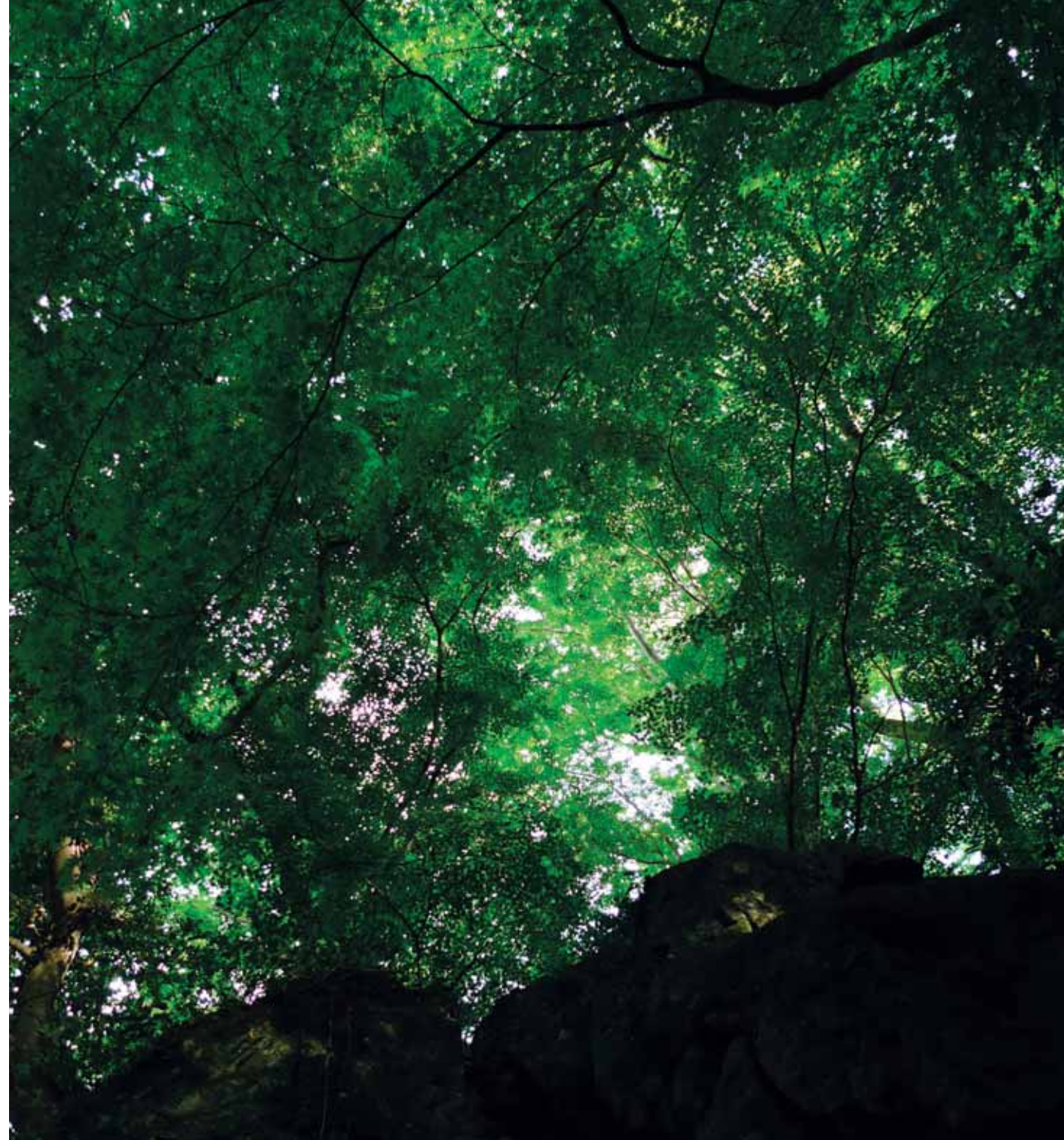


## 단풍잎이 하늘을 가리는 계곡

동백나무 숲 사이를 지나는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백운동 앞을 흐르는 계곡을 발견하게 된다. 계곡 건너 백운동정원 남쪽에 선 바위 언덕과 계곡 사이에는 아름다운 단풍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들 단풍나무에 대해 다산은 저서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높고 커서 하늘을 찌를 듯하여 기동감으로 쓰기에 마침 맞았다.”고 적어, 그 수령이 꽤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산은 이들 나무에 붉은 단풍이 선명하게 든 광경을 마치 붉은 비단 장막(홍라보장紅羅步障)을 친 듯 하다고 묘사하며, 이를 백운동의 제10경으로 쳤다.

계곡에 걸린 나무다리 아래에는 과거 폭포가 하나 있어, 풍단에 우거진 단풍나무가 물들면 그 색이 아래로 흐르던 폭포수에 비추어(풍리홍폭楓裏紅瀑) 마치 붉은 옥과 같은 모습을 띠었다고 한다. 다산은 이 광경을 제4경으로 쳤지만, 현재는 계곡 상류에 길이 나게 되면서 계곡이 건천에 가깝게 말라버려 안타깝게도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 되었다.

다리를 건너면 백운동정원의 대문에 도달하기 전 정원 남쪽 언덕의 서쪽 방면으로 냇가에 접해 우뚝 솟은 절벽과 마주치게 된다. 이 절벽에는 이끼가 많이 나 푸른빛을 띠고 있다. 다산은 절벽의 풍광을 취해 이를 제6경으로 삼고, 글씨를 음각하기에 딱 좋은 자리인데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것을 아쉽게 여겨 백운동 방문 당시 붉은 먹으로 창하벽이라고 썼다고 한다. 음각을 해둔 것은 아니었기에 다산이 쓴 글씨는 오래 전에 씻겨 내려가 사라지고 없다.





## 술잔을 나르던 아홉 굽이 물길

대문을 지나 내원으로 들어서면 아래마당에 방지 2개와 방지들을 잇는 수로들이 보인다. 정약용이 제5경으로 평한 이 수로는 유상곡수 놀이를 위해 판 것이다. 수로를 흐르는 물은 정원 옆의 계곡에서 끌어오는데, 물이 대문 옆 담장 하부의 입수구를 통해 정원으로 들어와 연못들을 지난 뒤 다시 대문 옆 반대쪽 담장의 아래로 난 배수구를 통해 계곡으로 흘러 나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백운동의 수로는 민가정원에 현존하는 유상곡수로는 유일하여 특기할 만하며, 또한 고저 차를 둔 상, 하 방지 둘이 수로로 이어지도록 조성한 양식은 소쇄원, 명옥헌, 다산초당 등지에서도 나타나는 호남 별서정원의 특징으로, 같은 학도로서 서로 학문을 권장하는 상징성을 지닌다고 한다.

백운동정원을 건립한 연년이 지은 『백운동명설』과 다산 이전에 백운동을 방문한 문인들의 시에는 항상 연꽃이 언급되는데, 이를 보면 두 연못에는 본래 연꽃이 심겨 있었던 듯하나, 현재로서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변의 나무가 무성해져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연꽃이 제대로 생육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인다. 그나마 흠에 파묻혀 원형을 잃었던 방지 및 수로들과 상지에서 하지로 수로가 꺾여 들어가는 지점에 유구만 남아 있던 정면 2칸, 측면 1칸의 초당이 온전하게 복원되어 있어 안타까움이 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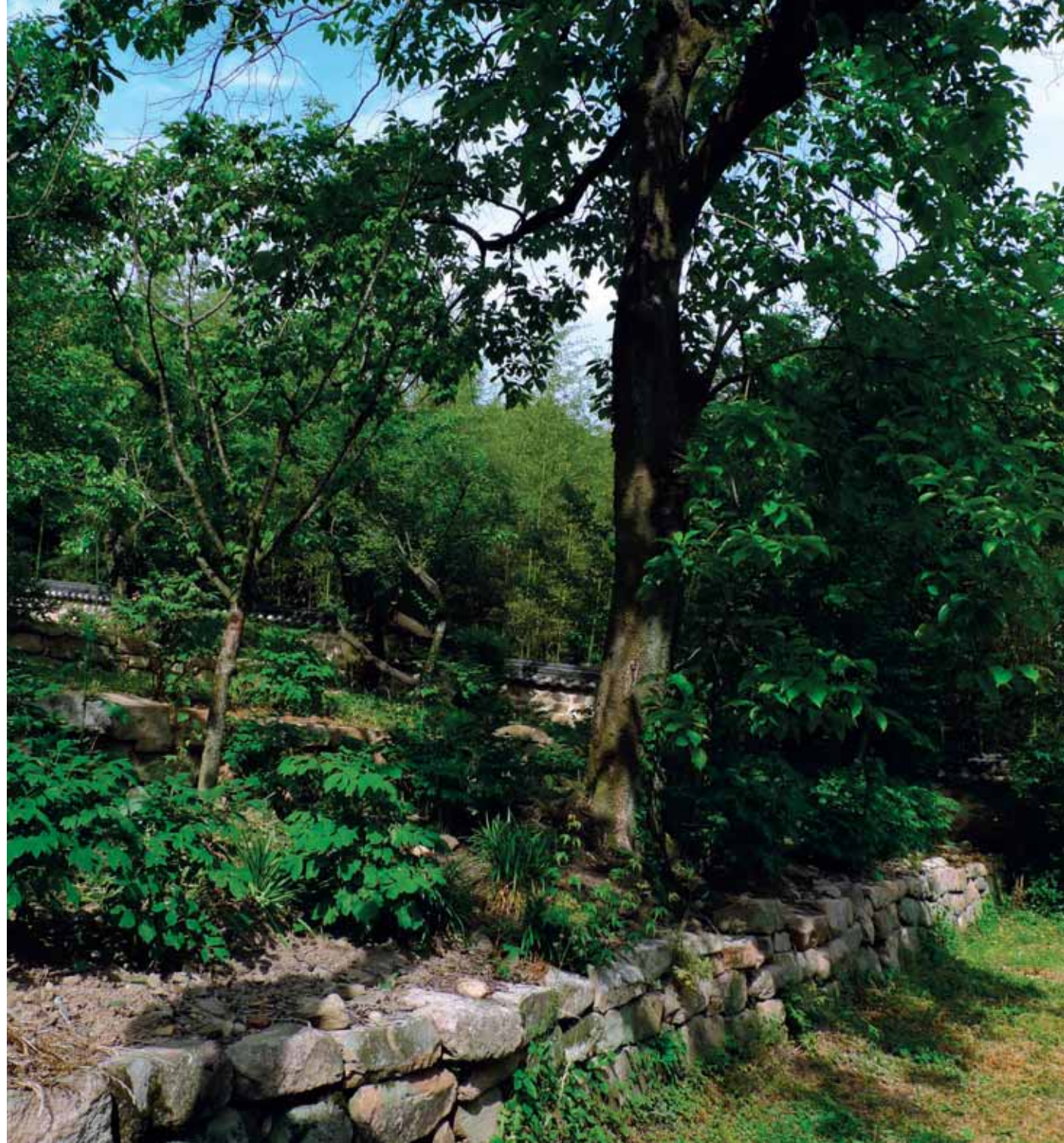


## 3칸 초가 앞 아롱진 화계

유상곡수가 흐르는 아래마당에서 북쪽으로 높은 지대를 바라보면 경사를 크게 세 단의 축대로 처리하였는데, 가장 높은 위치에 기와를 올린 본채가 있고, 그 앞으로 한 단 아래에는 3칸짜리 아담하고 고즈넉한 초가집이 사랑채로 있다. 이 초가집은 다산이 제9경으로 꼽았던 취미선방이다. 다산은 『백운첩』에서 이 방 앞에 선 세 그루의 나무를 노래하였지만,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사랑채도 치원 황상이 1857년에 지은 시문의 묘사를 볼 때 매우 오래 전부터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2009년에 다시 복원해둔 것이다.

본채와 아래마당 사이의 축대에는 각종 화훼류도 심겨 있다. 다산은 이 화계에 모란이 줄지어 심긴 것을 제8경으로 쳤다. 이 화계에는 모란 외에 다른 화초들도 식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백운동의 건립자 연년은 『백운동명설』에서 국화와 난을 언급하였고, 다산의 제자이자 이후 백운동을 물려받는 속도 이시현과 강진으로 귀양 왔던 문인 인계 송익휘 등이 남긴 시에서는 영산홍과 수선화가 언급되었다. 이시현의 『자이집』에 실린 시 「분국십수화회사」를 보면 당시 백운동에서 재배하던 국화의 품종이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다산의 다른 제자 초의는 백운동에 들렀다 이름난 국화 품종이었던 백학령을 얻어가기도 하였다 한다. 현재 화계에는 당대에 심긴 품종과 동일한 품종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모란과 영산홍, 국화가 여전히 심겨 있으며, 이 외에도 치자나무, 옥잠화, 맥문동, 석산, 자단선선인장 같은 화훼류와 유자나무, 매실나무, 뽕나무와 감나무 등의 유실수가 심겨 있다.

백운동정원이 처음 조성될 때는 본채 뒤편 담장 밖 언덕에 100그루의 홍매를 심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의 큰 나무들로 인해 빛이 가려서인지 세월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 다산은 100그루 매화의 그윽한 향을 제3경으로 치기는 하였지만, 방문 당시에도 많이 사라져 있었다 하며, 현재로서는 담 안에 몇 그루의 고매만이 잔존해 있을 따름이다.





## 용비늘 두른 소나무 옆 정자

정원의 남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풍단 옆으로 솟은 언덕 위에 조그만 초정이 하나 보인다. 담장에 난 쪽문으로 들어서서 돌계단을 딛고 언덕 위로 올라서면 정자에서 주변의 풍광과 정원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정자의 명칭은 정선대인데, 과거 이곳에서는 옥판봉의 풍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신선도 쉬며 경치를 감상할 만한 정자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라 한다. 다산은 이곳에서 내다본 풍광을 제11경으로 쳤다. 또 정자의 옆으로 뻗은 언덕의 등성에는 수피가 붉은 아름답리 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과거에는 더 많은 소나무들이 능선을 따라 일렬로 자라고

있었다 한다. 한때 소나무가 우거졌던 이 능선을 다산은 정유강이라 칭하며 제7경으로 평했다.

주변의 풍경을 정원 안으로 빌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조원의 기법인데, 백운동정원의 경우 그와 달리 정원 둘레의 숲과 언덕에 의해 정원 내부에서는 외부로의 시선이 차단되고, 대신 정원 외부에 위치한 정자로 주변 풍광과 정원 내부의 풍광을 끌어온 것이 특색이다.





## 운당원 대밭

백운동정원의 동편을 바라보면 담 너머로 줄기가 굵고 반들반들한 왕대가 뽀뽀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대밭이 다산이 제 12경으로 평한 운당원이다. 운당원의 하층에는 차나무가 자라는데, 대나무 아래 뿐만 아니라, 백운동 주변의 언덕 곳곳에서도 차나무를 볼 수 있다.

강진의 차문화는 유배 내려온 다산이 제자들에게 제다법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는데, 속도 이시현은 운당원에서 채취한 찻잎으로 삼증삼쇄한 떡차를 만들었다고 한다. 다산이 유배가 풀려 두릉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이곳에서 차를 공급받았다고 하니, 이곳을 강진 차문화의 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도 속도의 후손 이한영은 이 인근의 차나무에서 따내어 차를 제조했는데, 이를 우리나라 최초로 상표를 붙여 '백운옥판차'라는 이름으로 시판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백운옥판차는 해방 후 시판이 중지되었으나, 현재 이 지역의 다원에서 생산된 차가 동명의 상표로 다시 팔린다고 한다.





## 백운동정원 식재도면



## 백운동정원 식물 목록

- 가이즈카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Kaizuka'
-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 남천 *Nandina domestica* Thunb.
- 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
-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대추나무 *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
-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
- 두릅나무 *Aralia elata* (Miq.) Seem.
- 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 Zucc.
- 모과나무 *Pseudocystodonia sinensis* (Thouin) C.K.Schneid.
- 모란 *Paeonia suffruticosa* Andr.
- 목서 *Osmanthus fragrans* (Thunb.) Lour.
-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 백목련 *Magnolia denudata* Desr.
- 벽오동 *Firmiana simplex* (L.) W.F.Wight
- 복사나무 *Prunus persica* (L.) Batsch
- 뽕나무 *Morus alba* L.
- 석류나무 *Punica granatum* L.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 수국 *Hydrangea macrophylla* (Thunb.) Ser.
- 아그배나무 *Malus sieboldii* (Regel) Rehder
- 앵도나무 *Prunus tomentosa* Thunb.
- 왕대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Zucc.
- 왕벚나무 *Prunus yedoensis* Matsum.
- 유자나무 *Citrus junos* Siebold ex Tanaka
- 은행나무 *Ginkgo biloba* L.
- 자두나무 *Prunus salicina* Lindl.
-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 차나무 *Camellia sinensis* L.
- 치자나무 *Gardenia jasminoides* Ellis
- 팽나무 *Celtis sinensis* Pers.
- 함박꽃나무 *Magnolia sieboldii* K.Koch
-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 오헌고택

노정원사를 만날 수 있는 정원





입구

## 남도의 정취가 가득한 고택

장흥 위씨 집성촌인 방촌을 구성하는 일곱 마을 중 호산마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오헌고택은 장흥 위씨 반계공파의 종가로, 현재 중건자 오헌梧軒 위계룡魏啓龍의 증손인 위성탁 씨가 거주하고 있다. 1918년에 안채와 사당이, 1923년에는 사랑채가, 그 외의 건물들은 그 후에 지어졌다고 한다. 오헌고택은 남도 대농 반가의 공간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보존 및 관리가 양호하여 그 민속적 가치가 높아 국가민속문화재 제270호로 지정되었다.

오헌고택은 대숲이 우거진 나지막한 산 앞에 남동향으로 자리 잡았다. 가옥의 공간은 크게 바깥마당, 사랑마당, 안마당으로 나눌 수 있다. 바깥마당에는 연지가 있고, 사랑마당에는 사랑채와 그 부속채, 창고, 안마당에는 안채와 사당, 행랑채, 헛간채, 장독대 등이 있다. 독특하게도 안마당과 사랑마당이 각각 별도의 출입구를 지니는데, 사랑채의 우측으로는 안마당으로 통하는 문이, 연지의 좌측으로는 사랑마당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 집 앞에 흐드러진 연잎

오헌고택의 바깥마당에 조성된 연지는 ㄴ자의 형태를 띠고 그 안에 두 개의 원형 섬이 있다. 못 바닥에는 연꽃과 수련이 심겨 있고, 연못 안의 두 섬 중 하나에는 소나무와 오죽이, 다른 하나에는 영산홍이 심겨 있다. 섬에는 그 외에도 주변 산림에서 산포된 종자가 발아하여 억새, 짚레꽃, 청미래덩굴, 마삭줄, 자금우 등 다양한 자생식물이 같이 자라고 있어 자연스러운 멋을 더한다. 방지는 집 밖에 자리하여 집안의 정원을 밖과 연결하는데, 이에는 마을 사람들과 정원을 공유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연못가와 마당의 가장자리에는 여러 흥미로운 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 연못가에는 예로부터 그 재목이 단단하고 질겨 군기軍器 등의 제작에 요긴하게 쓰였던 불가시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 사시 사철 푸르름을 자랑하고, 그 옆으로 난 안마당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후박나무와 벽오동이 심겨 있다. 그 반대편에 위치한 사랑마당의 입구에는 예로부터 선비들이 즐겨 심었던 회화나무와 가을철 희게 피는 꽃의 향기가 진한 은목서, 줄기가 울퉁불퉁한 모과나무가 심겨 있고, 그 아래에는 대만빨남천과 사철나무 'BR2012' 등 독특한 관상수들이 심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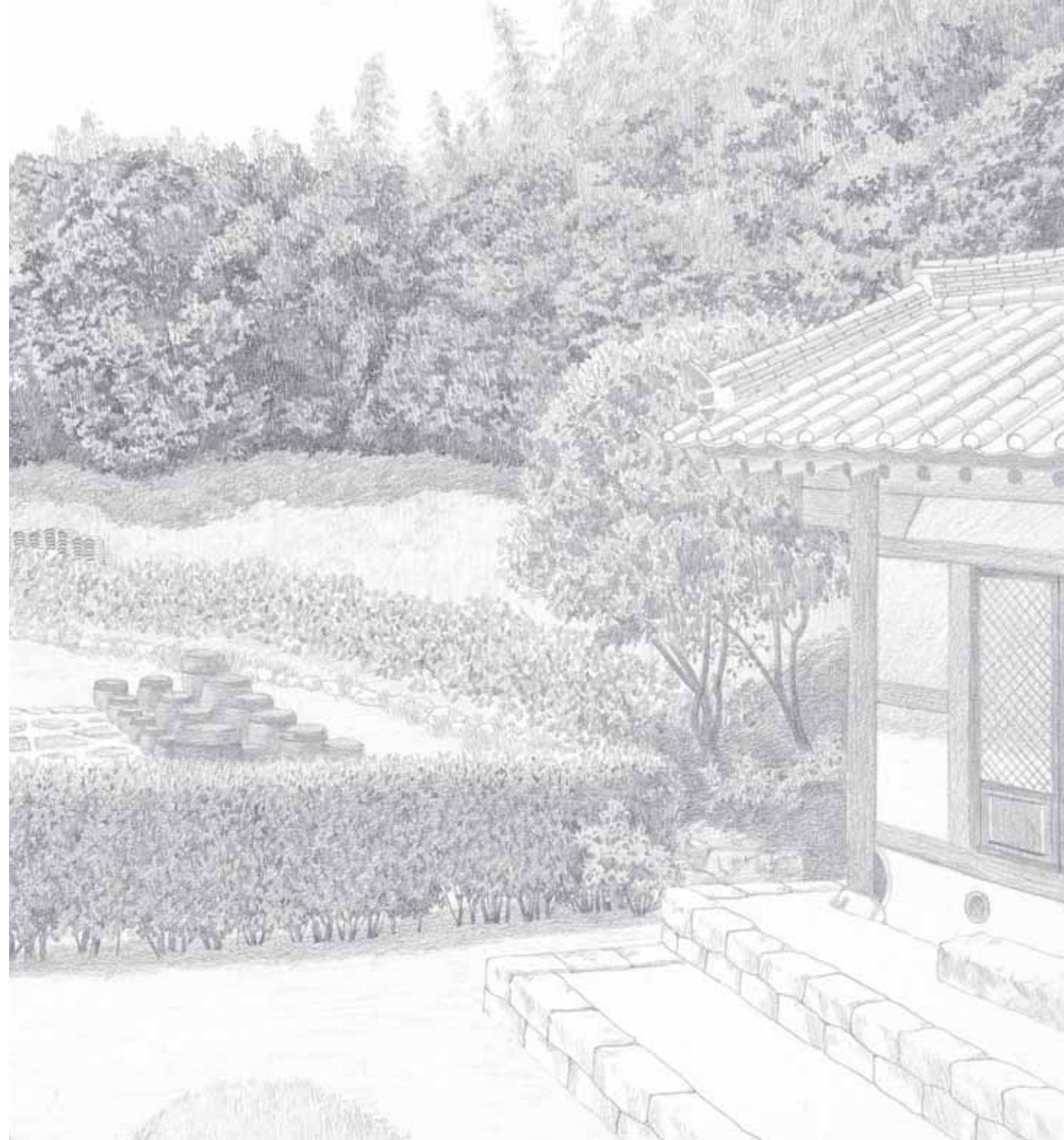


## 유자 향기 그윽한 사당과 후원



▪ 사당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열매가 노랗게 익은 유자나무. ▲

대문을 지나면 나타나는 안마당에는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지만, 안채의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나타나는 사당으로 이어지는 길과 사당 옆에는 키 큰 유자나무들이 서 있다. 유자는 예로부터 귀한 과실로, 조선시대 때는 진상되면 종묘에 먼저 바친 후 신하들에게 나누어 하사되었던 과일이며, 효도와 관련한 고사로 널리 알려진 회골유친懷橘遺親의 고사와도 연관이 있다. 유자나무를 사당 근처에 심은 뜻에는 그 푸른 잎과 향기로운 과실 외에도 조상에게 효를 다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사당의 왼쪽으로 조성된 치자나무 생울타리 너머로는 장독대가 있고, 그 뒤편으로는 각종 작물이 심긴 작은 채마밭이 있다. 채마밭 뒤쪽의 언덕 위로는 바람에 춤을 추는 대숲과 동백나무와 아왜나무들이 일렬로 서 반짝인다. 정원 주인의 말에 따르면 집 뒤편에 심긴 동백나무들은 방화수로 심은 것이라고 하는데, 본래 동백나무와 아왜나무를 비롯한 감탕나무, 먼나무, 굴거리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들은 두터운 혁질의 잎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여 불이 쉽게 붙지 않는 특성이 있다. 안채와 헛간채 사이에는 작은 화단이 있는데, 이곳에는 금목서, 금송, 돈나무 등이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 황철쭉과 선인장과의 *Opuntia*속 식물, 구골나무 '고시킴' 등 흔치 않은 관상식물들이 심겨 있어 주인의 정원 가꾸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 양화養花의 애정이 느껴지는 정원

안채를 지나 사랑마당으로 들어서면 매우 다양한 종류의 화훼와 수목들이 심긴 화단을 볼 수 있다. 화단에 심긴 식물 중에는 잎을 향신료로 쓰는 월계수나, 호랑가시나무의 재배품종 중 잎에 가시가 거의 없는 품종인 ‘부르포르디’, 줄기가 수직으로 솟구쳐 자라는 개비자나무 ‘파스티기아타’ 등 독특한 재배식물들이 많다. 또 조선시대 때는 동백나무나 치자나무 등과 더불어 남쪽에서 재배한 뒤 서울의 권세가에 팔았다는 당종려나, 은회색의 줄기가 큼지막한 선인장과의 *Opuntia*속 식물, 싱그러운 잎이 아름다운 엽란 등은 이국의 정취를 풍긴다. 여기에 더해 화단 한편에는 사람 키보다 크게 자란 세월을 가늠하기 힘든 영산홍이 놀랍다.

이 외에 오헌고택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식물을 하나 더 들자면 파초가 있다. 파초는 바나나와 같은 속의 식물로, 중국 남서부가 원산지이다. 잎이 크고 시원하여 비가 내릴 때 빗물에 잎에 떨어지는 소리가 운치 있어 예부터 반가에서 즐겨 기르던 식물이며, 19세기 초 조선의 문인들 사이에서는 파초의 재배가 수선화와 더불어 유행이었던 적도 있

었다고 한다. 오헌고택에서는 파초를 먹기도 하는데, 헛줄기 중심의 연한 속을 꺼내어 멸치젓에 담가 장아찌로 만들어 먹는 것이 오헌고택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한다. 제주도에서 파초의 속을 간장과 소금물에 절여 반치지라 부르며 먹는 풍습을 떠올리게 하는 전통이다.

50여 년간 교직에 몸담았다는 고택 주인 위성탁 씨는 원예에 관심이 많아 혼자 책으로 공부하며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심고 재배해왔다고 한다. 남도의 따뜻한 기후가 보다 다채로운 종류의 화초를 재배하는데 이점이 있기도 하겠지만, 정원 주인의 원예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이렇게 다양한 식물이 유지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고택 주인은 얼마 전에도 담장과 화단을 개축하면서 다양한 목련류의 재배품종들을 새로 심었다고 한다. 앞으로 정원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가꾸어질지 기대된다.





## 오헌고택 식재도면



## 오헌고택 식물 목록

- 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Maxim.
-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 개물푸레나무 *Maackia amurensis* var. *buergeri* C.K.Schneid.
- 개비자나무 '파스티기아타' *Cephalotaxus harringtonia* 'Fastigiata'
- 골담초 *Caragana sinica* (Buc'hoz) Rehder
- 광나무 *Ligustrum japonicum* Thunb.
- 구골나무 '고시키' *Osmanthus heterophyllus* 'Goshiki'
- 금목서 *Osmanthus fragrans* var. *aurantiacus* Makino
- 금송 *Sciadopitys verticillata* (Thunb.) Siebold & Zucc.
- 팽팡나무 *Ilex crenata* Thunb.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당중려 *Trachycarpus wagnerianus* Hort. ex Becc.
- 돈나무 *Pittosporum tobira* (Thunb.) W.T.Aiton
-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
- 두릅나무 *Aralia elata* (Miq.) Seem.
- 마삭줄 *Trachelospermum asiaticum* (Siebold & Zucc.) Nakai
- 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 Zucc.
- 모과나무 *Pseudocarya sinensis* (Thouin) C.K.Schneid.
- 모란 *Paeonia suffruticosa* Andr.
- 반송 *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
-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 백목련 *Magnolia denudata* Desr.
- 백송 *Pinus bungeana* Zucc. ex Endl.
- 빛나무류 *Prunus pseudocerasus* Lindl.
- 벽오동 *Firmiana simplex* (L.) W.F.Wight
- 불두화 *Viburnum opulus* f. *hydrangeoides* (Nakai) Hara
- 붉가시나무 *Quercus acuta* Thunb.
- 비자나무 *Torreya nucifera* (L.) Siebold & Zucc.
- 비파나무 *Eriobotrya japonica* (Thunb.) Lindl.
- 빨남천 *Mahonia japonica* (Thunb.) DC
- 사스레피나무 *Eurya japonica* Thunb.
- 사철나무 'BR2012' *Euonymus japonicus* 'BR2012'
- 산철죽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év.) Sugim.
- 섬잣나무 *Pinus parviflora* Siebold & Zucc.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 송악 *Hedera rhombea* (Miq.) Bean
- 수국 *Hydrangea macrophylla* (Thunb.) Ser.
- 영산홍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 에덕나무 *Mallotus japonicus* (Thunb.) Müell.Arg.
- 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 오죽 *Phyllostachys nigra* (Lodd.) Munro
- 오평티아 *Opuntia* sp.
- 옥향 *Juniperus chinensis* 'Globosa'
- 월계수 *Laurus nobilis* L.
- 유자나무 *Citrus junos* Siebold ex Tanaka
- 유카 *Yucca gloriosa* L.
- 은목서 *Osmanthus × fortunei* Carr
- 자금우 *Ardisia japonica* (Thunb.) Blume
- 자목련 *Magnolia liliflora* Desr.
- 장미 *Rosa* cv.
-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 켈레꽃 *Rosa multiflora* Thunb.
- 차나무 *Camellia sinensis* L.
- 참죽나무 *Cedrela sinensis* Juss.
- 청미래덩굴 *Smilax china* L.
- 치자나무 *Gardenia jasminoides* Ellis
- 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L.
- 향나무 '매니' *Juniperus chinensis* 'Maney'
- 호랑가시나무 '부르포르디' *Ilex cornuta* 'Burfordii'
- 황목련 *Magnolia acuminata* (L.) L.
- 황벽나무 *Phellodendron amurense* Rupr.
- 황철죽 *Rhododendron japonicum* f. *flavum* (Miyoshi) Nakai
- 황칠나무 *Dendropanax morbiferum* H.Lév.
- 회양목 *Buxus koreana* Nakai ex T.H.Chung & al.
- 회화나무 *Sophora japonica* L.
- 후박나무 *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
- 흰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f. *alba* (W.A.Nicholson) Rehder



# 존재고택

계류를 따라 심긴 울창한 동백나무 숲





## 호남 실학의 묘상

국가민속문화재 제161호로 지정된 존재고택은 장흥 위씨 안향공파 응천공 종중의 종가로, 장흥 위씨 집성촌인 방촌을 구성하는 일곱 마을 중 하나인 계춘동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고택은 나지막한 산자락에 서향으로 지어졌는데, 집 뒤로는 동백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그늘을 드리운다. 공간구성은 크게 연지가 있는 바깥마당, 안마당과 서재마당, 후원과 사당공간으로 나뉜다. 서재는 18세기 전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문간채와 안채는 20세기에 개축되었다고 한다.

이 가옥은 호남 실학의 선구자인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1727~1798)가 태어난 곳으로, 그에 얽힌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특히 대문 앞 바깥마당에 위치한 연지 옥련정玉蓮井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존재선생이 글공부에 전념하고 있던 중 연못에서 개구리가 시끄럽게 울었다. 그러자 선생은 부적을 그리고 머슴을 시켜 연못에 던져 넣었다. 그 후 이 연못에서는 지금까지도 개구리가 들어가면 울지 않는다고 한다.

존재고택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대문채 앞 바깥마당의 연지이다. 못에는 수련이 심겨 있고, 가운데 둥근 섬에는 오죽이 식재되어 있다. 연못 주변으로는 배롱나무, 수국, 오갈피나무, 철쭉류, 석산 등이 심겨 있다.





## 안채와 서재의 마당

문간채를 통해 안마당으로 들어서면 전면에는 안채, 우측에는 사랑채의 역할을 하는 서재, 좌측으로는 헛간채가 보이고, 안채의 남동쪽 화계 위로는 사당이, 좌측으로는 장독대와 창고가 보인다. 안채는 화계를 겸하는 이중의 기단 위에 지어져 있고, 서재는 그 오른쪽 앞에 있는데, 지대가 더 높은 안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1.3m 가량의 높은 기단 위에 지어져 있다. 서재는 한칸 반 규모의 건물로 서쪽과 남쪽으로는 뒷마루를 두어 개방시켰는데, 높은 기단 덕에 마루에서 사당 방향의 화계와 바깥마당의 연지, 주변의 대숲과 전담 등 경관을 조망하기 좋다. 서재의 지붕은 독특하게 도 두 가지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데, 지붕의 남쪽은 팔작지붕이고, 안채와 접하는 북쪽은 맞배지붕이다. 안마당은 비

워져 있으며, 안채 기단의 첫 번째 단에는 석창포가 많이 심겨 있다. 석창포는 등잔불의 그을음을 없애고 눈을 맑게 해 준다 하여 독서를 많이 하는 사대부들이 즐겨 구경했던 식물이다. 마당에는 감나무, 매실나무, 모과나무, 유자나무, 비파나무, 석류 등의 과수가 심겨 있다. 헛간채 뒤에는 샘에서 나온 물이 흐르는 수로가 하나 있는데, 과거 연못이 있었으나 현재는 메워서 그 위에 과수를 식재해 두었다. 블루베리, 감나무 등의 과수 외에 수양복사나무, 이팝나무 등의 관상용 수목을 심었는데, 앞으로 자라날 모습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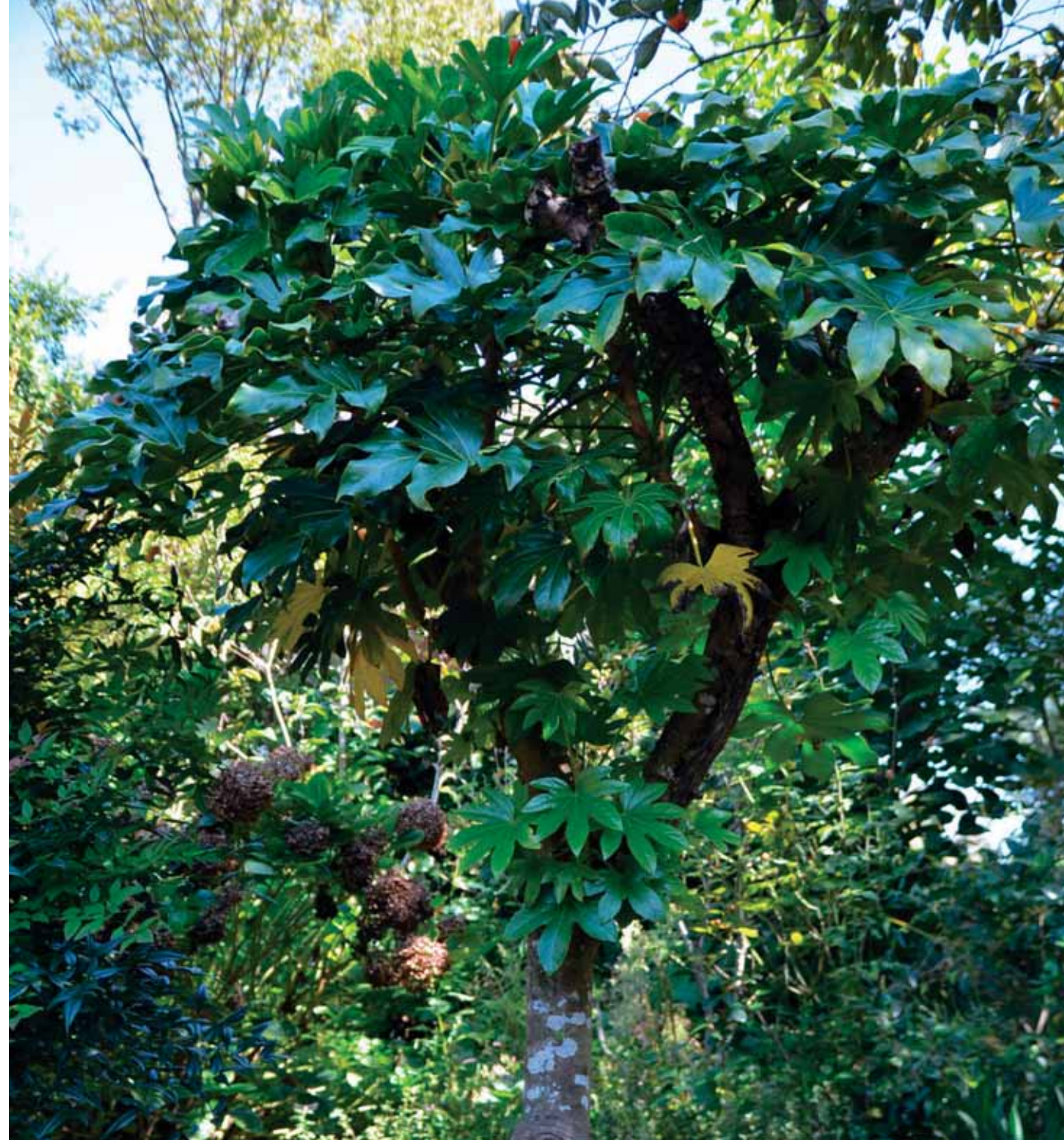




## 울창한 후원의 화계



안채 남동쪽의 높은 지대에는 사당이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 단의 화계가 조성되어 있고 그 사이로 사당으로 향하는 작은 오솔길이 있다. 화계의 우측에는 동백 나무와 감나무, 목련 등의 교목이 서 있고, 그 아래로는 백정화, 철쭉류, 수국, 남천 등의 화목류가 무성하며, 하층에는 석창포, 왕원추리, 석산, 마삭줄, 머위, 바위취 등이 지면을 덮고 있다. 화계에는 사람 키만한 영산홍들이 많이 심겨 있는데, 이들은 고택 주인이 어렸을 적부터 화계를 지키던 오래된 나무들이라 한다. 조선시대부터 영산홍은 꽃이 화려하여 양반가나 지방 부농들이 많이 가꾸었던 꽃인데, 나무의 크기를 볼 때 화계가 조성될 당시부터 있었던 나무인 것 같다. 화계에 심긴 수목으로 또 인상 깊은 것은 교목 같은 모습으로 자라난 팔손이 한 그루이다. 팔손이는 관목으로 자라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존재고택의 팔손이는 아마도 밀동에서 발생하는 흙지들을 제거하고 하나의 가지만을 남겨 이러한 형태로 키워낸 듯하다. 팔손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진도, 미륵도 등 남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식물로, 현재는 관엽식물로 인기가 있으나 정확히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상용으로 심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예부터 관상식물로 재배해 왔고, 잎의 사포닌 성분을 이용하여 화장실의 구더기를 제거할 목적으로 철도 역사 근처에 심기도 하였다고 하니 아마도 일제 강점기부터 재배되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팔손이**  
*Fatsia japonica* (Thunb.)  
Decne. & Planch. ▶



## 고택의 역사를 굽어본 모과나무

화계 사이로 난 계단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면 사당이 나온다. 사당은 맞배지붕으로 지어져 있는데, 지붕 양옆의 풍판이 독특하게 호를 그리지 않고 가운데가 들어가 물결과 같은 모양을 지니고 있다. 사당 주변과 그 너머 산에는 본래 소나무가 많았으나, 재목으로 내다 팔아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소나무가 사라진 후 그 자리에 대나무가 돌아 대밭을 이루었는데, 너무 무성해져 최근 제거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사당 뒤쪽으로 동백나무를 심어 두었고, 안채 뒤쪽 경사면에는 산수유를 몇 그루 식재해 두었다.

사당의 왼편으로는 꽤 키 큰 모과나무가 한 그루 보이는데, 이 나무 역시 고택 주인이 어렸을 때부터 있던 매우 오래된 나무라 한다. 한 번 태풍에 쓰러졌다고 하는데, 현재의 나무는 쓰러진 나무의 지제부에서 맹아지가 돌아 다시 자라난 것이라고 한다. 이 모과나무에 달리는 모과는 향이 무척 좋아 동네 사람들이 즐겨 가져가 먹었다고 하는데, 자기 집에 모과나무가 있어도 그 모과를 먹지 않고 이 집의 모과를 ‘참모과’라 부르면서 찾았다고 한다.

### 모과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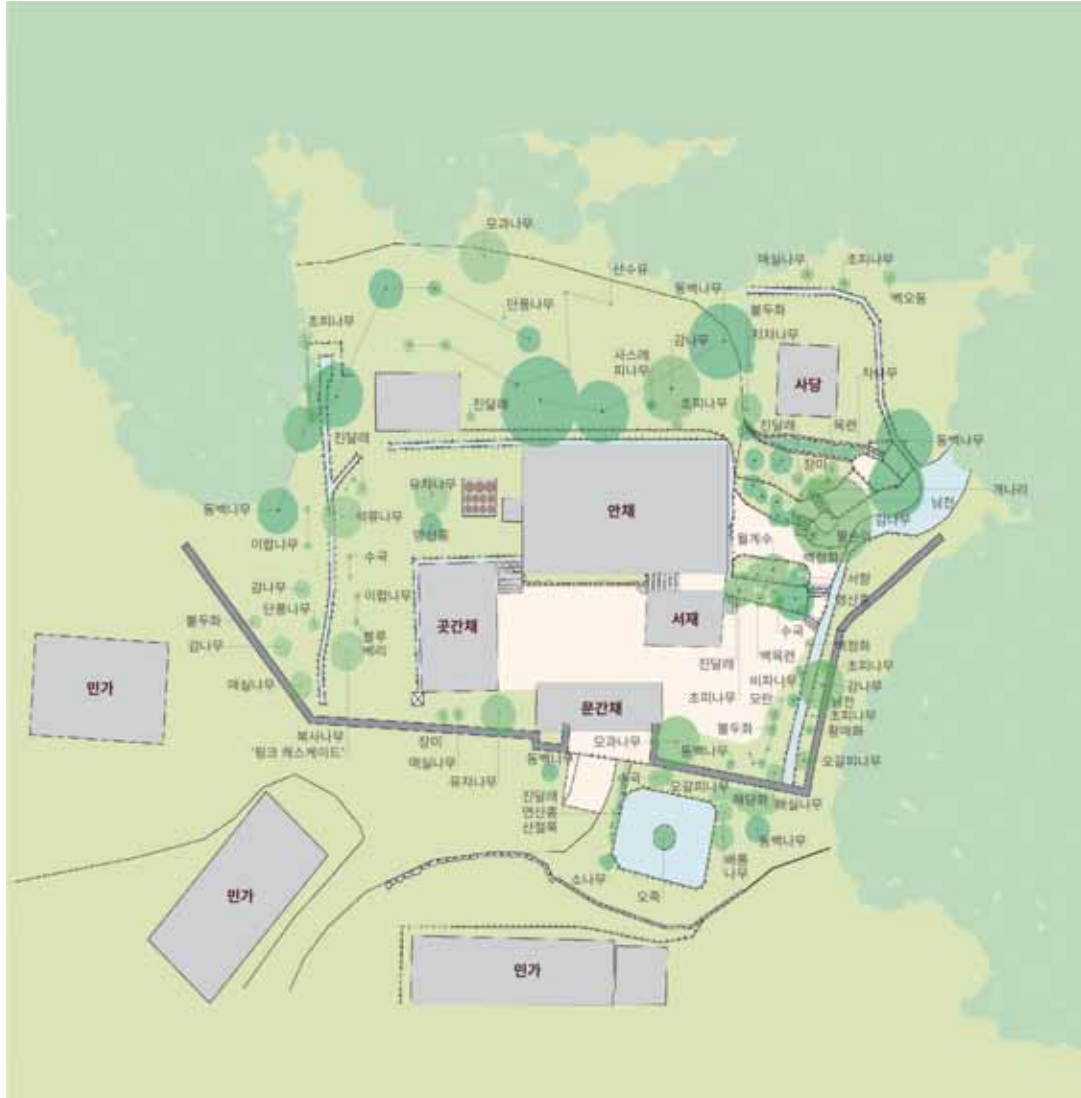
*Pseudocdonia sinensis*  
(Thouin) C.K.Schneid.

▪ 존재고택 뒤쪽 언덕에 선 키 큰 모과나무. ▶





## 존재고택 식재도면



## 존재고택 식물 목록

-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 개나리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 골담초 *Caragana sinica* (Buc'hoz) Rehder
- 남천 *Nandina domestica* Thunb.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
- 매죽나무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 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 Zucc.
- 모과나무 *Pseudocydonia sinensis* (Thouin) C.K.Schneid.
- 모란 *Paeonia suffruticosa* Andr.
- 목련 *Magnolia kobus* DC.
- 무궁화 *Hibiscus syriacus* L.
-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 백목련 *Magnolia denudata* Desr.
- 백경화 *Serissa japonica* (Thunb.) Thunb.
- 벽오동 *Firmiana simplex* (L.) W.E.Wight
- 복사나무 '핑크 캐스케이드' *Prunus persica* 'Pink Cascade'
- 불두화 *Viburnum opulus* f. *hydrangeoides* (Nakai) Hara
- 비파나무 *Eriobotrya japonica* (Thunb.) Lindl.
- 사스레피나무 *Eurya japonica* Thunb.
-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 산철죽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év.) Sugim.
- 서향 *Daphne odora* Thunb.
- 석류나무 *Punica granatum* L.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 숨데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 수국 *Hydrangea macrophylla* (Thunb.) Ser.
- 영도나무 *Prunus tomentosa* Thunb.
- 영산홍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 예덕나무 *Mallotus japonicus* (Thunb.) Müell.Arg.
- 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 오죽 *Phyllostachys nigra* (Lodd.) Munro
- 월계수 *Laurus nobilis* L.
- 유자나무 *Citrus junos* Siebold ex Tanaka
- 이팝나무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 장미 *Rosa* cv.
-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 차나무 *Camellia sinensis* L.
-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L.) DC.
- 치자나무 *Gardenia jasminoides* Ellis
- 팔손이 *Fatsia japonica* (Thunb.) Decne. & Planch.
- 해당화 *Rosa rugosa* Thunb.



# 소우당고택

.....  
울창한 산길을 걷는 듯 멋스런 별당정원  
.....





## 사랑채와 안채

금성산 아래 구릉과 평지 사이, 낙동강의 지류 쌍계천이 흐르는 비옥한 대지에 영천 이씨 집성촌 산운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소우당고택은 산운마을의 중앙에 위치하는데, 19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시대의 반가주택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제237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는 조영자 소우素宇 이가발李家發의 6대손인 이견 씨가 소유하여 한옥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소우당고택의 배치는 크게 생활공간과 별당공간으로 나뉘는데, 간결하고 소박한 생활공간에 비해 별당정원은 넓은 공간으로, 담에 둘러싸여 생활공간과 구별된다. 별당의 정원은 전반적으로 조원이나 석물의 배치 등에서 풍수적 원리의 반영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건물 및 조경물이 지형에 순응하여 인공과 자연을 조화시키는 순응의 미학을 지닌 공간으로 조선 말기 사대부의 풍류와 운치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소우당의 본채는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사랑채가 맞물려 안마당을 감싸며 전형적인 양반가 본채의 형태인 ㄷ자형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사랑채는 5량가<sup>※</sup>로 지어지는데, 소우당의 안채는 5량가로 지어졌지만 사랑채는 3량가로 지어져 안채보다 협소하고 왜소한 것이 특이하다. 작은 규모를 보완하기 위해 사랑채는 전면 쪽마루에 난간을 달아 장식하였다. 본채의 축대 앞과 담장 아래를 따라 작약과 장미 등 몇 가지의 화훼류가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소우당의 본채 마당은 전반적으로 소박한 비움의미를 지닌다. 뒷마당에는 장독대가 있고, 장독대 주변과 담장을 따라 대추나무, 석류나무, 앵도나무, 살구나무, 감나무, 고욤나무 등의 유실수들이 심겨 있다.

지붕을 바라보면 보다 재미있는 식물들이 눈에 띄는데, 바로 바위솔이다. 기와 사이에 뿌리를 박고 자란다 하여 와송瓦松 혹은 와화瓦花라고 불리기도 하는 바위솔은 돌나물과의 다년초로, 대나무류와 비슷하게 꽃을 피울 때 모든 생장점이 꽃눈으로 소진되어 결실하고 나면 죽는 일회결실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바위솔은 일년송一年松이라고도 불렸다.

※ 5량가 전통 건축에서 지붕의 주심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중도리를 첨가하여 총 다섯 개의 도리를 쓴 건물.



바위솔  
*Orostachys japonica*  
(Maxim.) A.Berger ▶



## 물에 비친 단풍이 화사한 연지

별당공간으로 난 두 협문 중 사랑마당에 난 협문을 통과하면 별채의 남쪽에 자리 잡은 연지와 바로 마주치게 된다. 소우당고택의 연못은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수공간 조성원칙인 천원지방天圓地方을 따르지 않고 경주 안압지와 같이 굴곡진 부정형으로 만들어져 매우 이색적인데, 한반도의 형태를 따서 만들었다고도 한다. 정원주의 말에 따르면 못에 입수구가 없어 과거에는 물을 길어다 채웠으나, 현재는 수도를 설치하였다. 출수구는 남측 담장 밑으로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연못 주변으로는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 단풍나무들이 심겨 있어 가을날 물에 비친 단풍이 매우 화사하다. 단풍나무 외에도 당단풍나무, 음나무, 모과나무, 산수유 등의 나무들이 심겨 있어 가을 정취를 더한다. 연못 한편으로는 솨대 덩굴 너머 나지막한 언덕 위로 소박한 정자가 있어 운치가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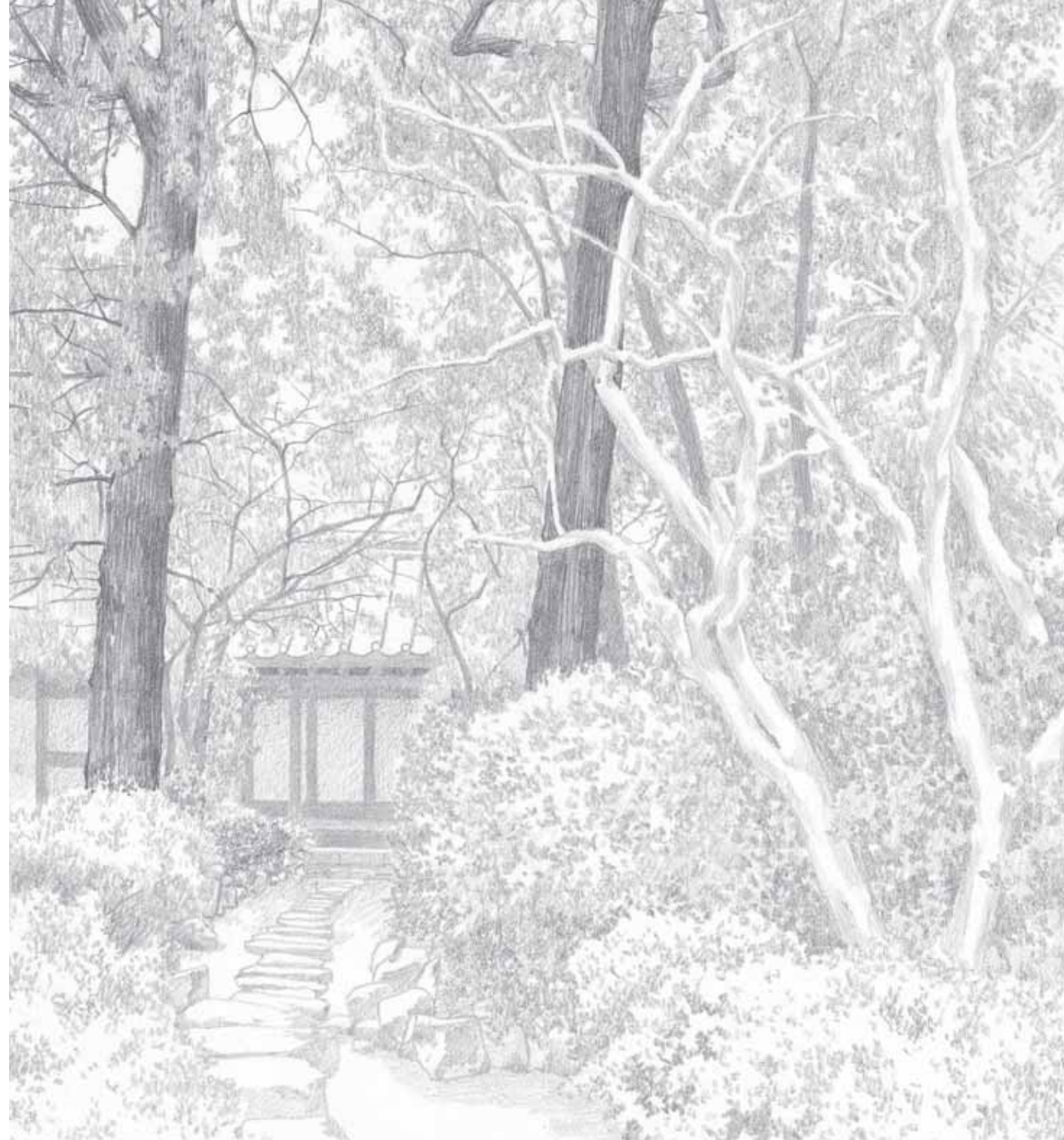




## 원림 숲에 깊숙이 자리한 별당

연지의 북쪽으로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의 별당이 있는데, 소우의 증손자가 양자로 입적하게 되면서 친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한다. 별당으로 향하는 길은 편평한 자연석을 징검다리처럼 조성하였으며, 이 길을 사이에 두고 별당채 앞에 매실나무와 측백나무가 나란히 마주보게 대식되어 있어 마치 깊은 산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전통 조경에서 대식은 주로 정형적이고 의례적인 공간인 궁이나 사당, 혹은 강학 및 교학이 이루어지는 성균관, 서원, 향교 등의 공간에 사용되는 기법인데, 원림 내에 위치한 별당이라는 사적공간에 수목을 대식하였다는 점이 특이하고도 흥미롭다. 아마도 대칭으로 선 나무를 터널처럼 가림의 장치로 사용하여 차폐의 목적을 꾀한 것으로 보여진다.

별당 앞에 심긴 측백나무는 소우의 4대손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명 황제의 묘역에서 어린 나무 두 그루를 가져와 심은 것이라고 한다. 측백나무는 중국 북부가 원산지인 상록침엽교목으로, 국내에서도 대구, 단양, 안동, 영양 등지에 분포한다고 하나 당대에는 흔치 않은 수종이었으며, 중국에서는 공자묘와 황제의 능에 심는 나무였다. 과거에는 측백나무의 가지가 약효를 지닌다는 풍문에 산운마을 사람들이 꺾어다 약으로 쓰기도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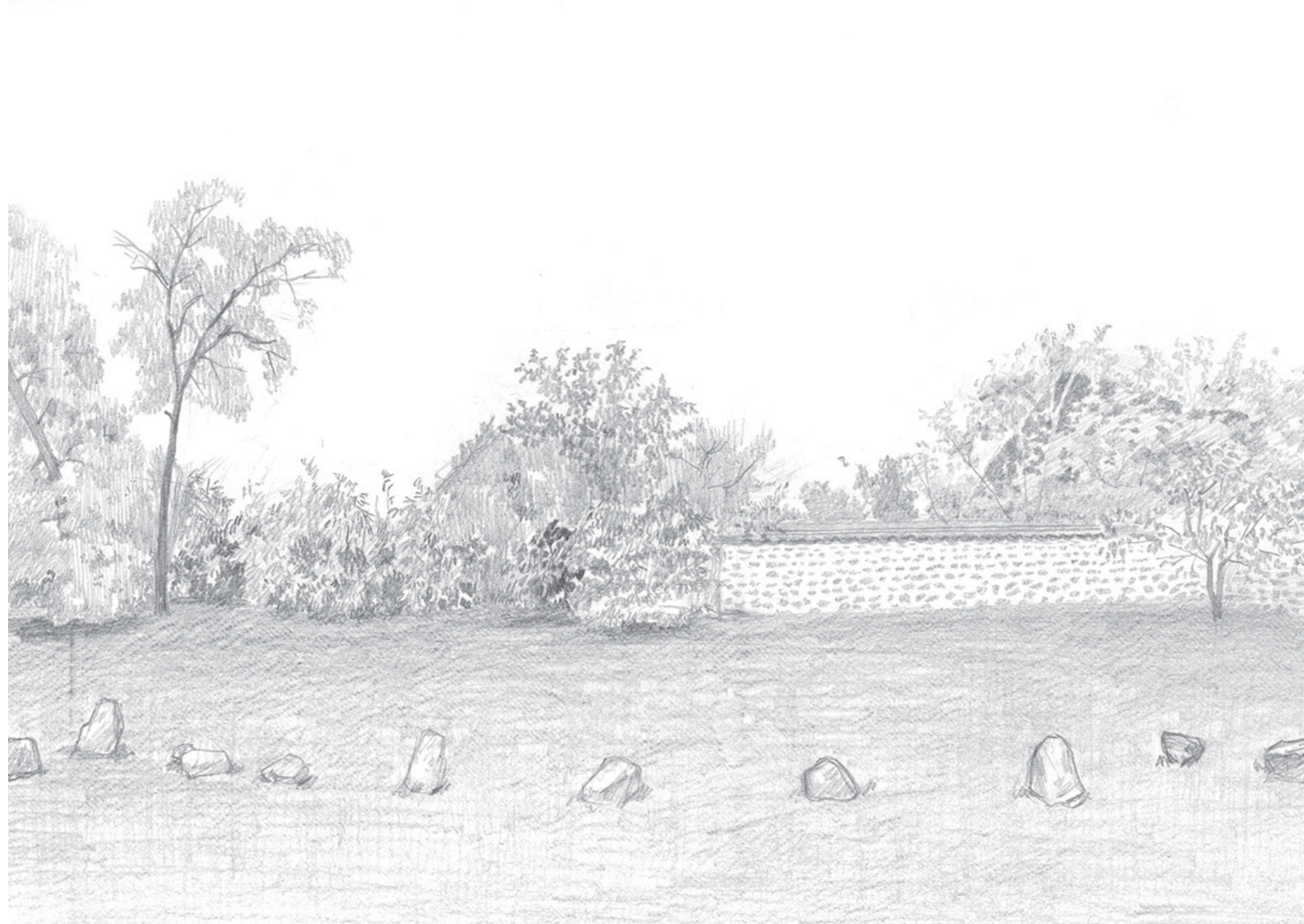




## 아름드리 나무와 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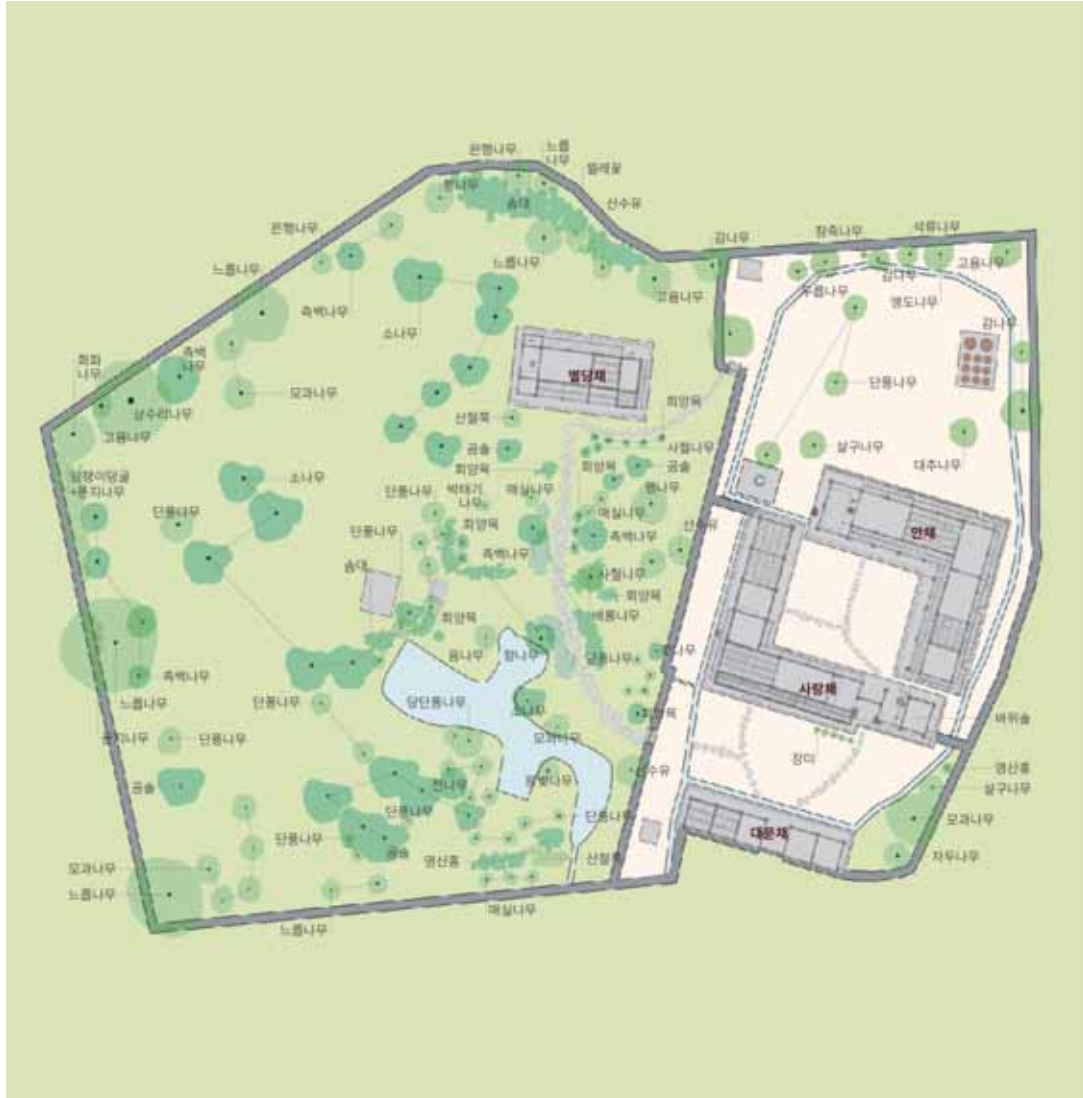
별당공간의 곳곳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많다. 특히 별당건물 주변의 고아한 노송들과 담장을 따라 우뚝 선 아름드리 느릅나무들이 가장 아름답지만, 그 외에도 측백나무, 은행나무, 모과나무 등의 다양한 수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목들이 이루는 수림은 토석담에 의해 구획되어 있는데, 담이 주는 질서와 자연스러운 수림간의 조화가 아름답다. 특히 별당의 뒷문을 열면 숲대가 무성하게 토석담을 가리고 그 사이로 고욤나무와 산수유, 찔레꽃, 청미래덩굴 등이 어우러져 자연과 하나되는 정원이 펼쳐진다.

소우당의 정원에는 길쭉한 돌들을 수직으로 세워서 배치한 장식들 역시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은 풍수적 원리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금성산이 풍수적으로 음기가 강한 산이기에 남자들이 장수하지 못할 터라고 해서 이를 억누르기 위해 양기를 상징하는 돌을 세운 것이라 한다. 또한 여러 개의 돌비석을 병풍처럼 두른 것은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고 집안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한다.





## 소우당고택 식재도면



## 소우당고택 식물 목록

-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 고욤나무 *Diospyros lotus* L.
- 곰솔 *Pinus thunbergii* Parl.
-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 당단풍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 대추나무 *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
- 두릅나무 *Aralia elata* (Miq.) Seem.
- 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 Zucc.
- 모과나무 *Pseudocdonia sinensis* (Thouin) C.K.Schneid.
- 바위솔 *Orostachys japonica* (Maxim.) A.Berger
- 박태기나무 *Cercis chinensis* Bunge
-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 뽕나무 *Morus alba* L.
-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 산철쭉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év.) Sugim.
- 살구나무 *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
- 상수리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 서양측백나무 *Thuja occidentalis* L.
- 석류나무 *Punica granatum* L.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 솔대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 앵도나무 *Prunus tomentosa* Thunb.
- 영산홍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 왕벚나무 *Prunus yedoensis* Matsum.
- 은행나무 *Ginkgo biloba* L.
- 옻나무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 자두나무 *Prunus salicina* Lindl.
-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 장미 *Rosa* cv.
- 전나무 *Abies holophylla* Maxim.
- 찔레꽃 *Rosa multiflora* Thunb.
- 참죽나무 *Cedrela sinensis* Juss.
- 측백나무 *Thuja orientalis* L.
- 팽나무 *Celtis sinensis* Pers.
- 폰지나무 *Celastrus flagellaris* Rupr.
- 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L.
- 회양목 *Buxus koreana* Nakai ex T.H.Chung & al.
- 회화나무 *Sophora japonica* L.



# 연정고택

.....  
팽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호젓한  
연지의 자연미  
.....





## 조화로운 자연미를 지닌 연지

국립민속문화재 제107호인 연정고택은 영일 정씨 집성촌인 선원마을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선원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학산을 배산으로 집 앞에는 자호천이라는 개울이 흐르는 배산임수형 터에 남서향으로 자리한다. 고택의 건립자는 연정 정일릉으로, 1979년 문화재 등록 당시 고택의 주인이었던 정용준 씨의 8대조라 한다. 정일릉은 1788년에 별당인 연정을 먼저 짓고 그 이후 1800년 사망하기 전에 본채를 완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택의 진입로로 들어서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연지는 본래 마당 밖을 흐르던 작은 계류를 막아서 조성한 계담 형식의 못으로, 기존의 물길을 막고 넓혀서 조성하였기 때문에 방지의 형태가 아닌 자유형인 것이 특징이다. 본래 계류의 흐름을 따라 못이 세 개 조성되어 있었다 하나 형태가 명확하게 남은 것은 가장 하류의 연못뿐인데, 이렇게 계류로 연결된 세 연지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못가에 세워진 연정은 정자로서 계정溪亭임과 동시에 지정池亭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못에는 연꽃이 가득 자라고 있는데, 이는 사람이 심은 것이 아니라 연정을 짓고 나니 저절로 자라난 것이라고 전해지며, 별당채의 당호 ‘연정蓮亭’은 여기에 서 비롯한 것이라고 한다.





## 연정의 고아함

연정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의 ㄱ자형 초익공집인데, 『연정기蓮亭記』에 따르면 “동편에 또 한시령을 더 첨하여 기각度閣(찬장)이 간을 만들었으니 양로養老하기 위하여 가히 그 차반이 없어서는 아니되는 것이요, 처마에 붙이어 별청이 간을 만든 것은 공부하는 아동을 위하여 그곳이 없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집안의 어르신을 봉양하고 자제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운데의 대청이 양편에 있는 방의 뒷마루와 연결되어 연지의 풍광을 감상하기 좋게 지어져 있으며, 지붕 동쪽에는 본기동에 총량으로 결구된 4개의 뒷기동에 의해 지탱되는 눈썹지붕을 덧달아 따가운 햇빛과 들이치는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에는 못에 연과 더불어 고기를 길러 완상하고, 못가에는 각종 꽃과 풀을 심어 봄과 여름 사이 울긋불긋 피어난 모습이 빛났다고 하는데, 지금도 연정 둘레에 키가 큰 모과나무 한 그루와, 석류나무, 배롱나무, 무궁화 등의 화목류와 유실수들이 심겨 있어 경관에 멋을 더한다.

연정이 접한 계류의 건너편에는 나지막하지만 경사가 급한 언덕이 있어 별당공간을 위요하고 있고, 그 위에는 소나무, 왕버들, 느티나무, 팽나무 등의 우람한 거목들이 늘어서 방풍림을 이루고 있다. 연정의 동쪽으로는 계류 위에 나무다리가 하나 걸쳐져 있는데, 이는 마을의 큰집과 작은집 사이에 난 지름길로 통하는 다리로, 본래 이 집의 대문채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 대숲과 큰키나무들에 둘러싸인 본채

연지에서 약 50m 가량 더 진입하면 담 너머로 연정고택의 본채가 보인다. 전체적으로 ㄱ자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안채를 중심으로 좌우에 곶간채와 방앗간이 있고, 안채 건너편에는 문간채와 사랑채가 이어져 있다. 과거에는 사랑채 앞에 초가지붕의 마구간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사라졌다. 또한 본채 서쪽에는 대문채가 하나 있어 별당과 본채를 가르는 현재의 길이 나기 전에는 그곳으로 출입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쪽문과 창고 하나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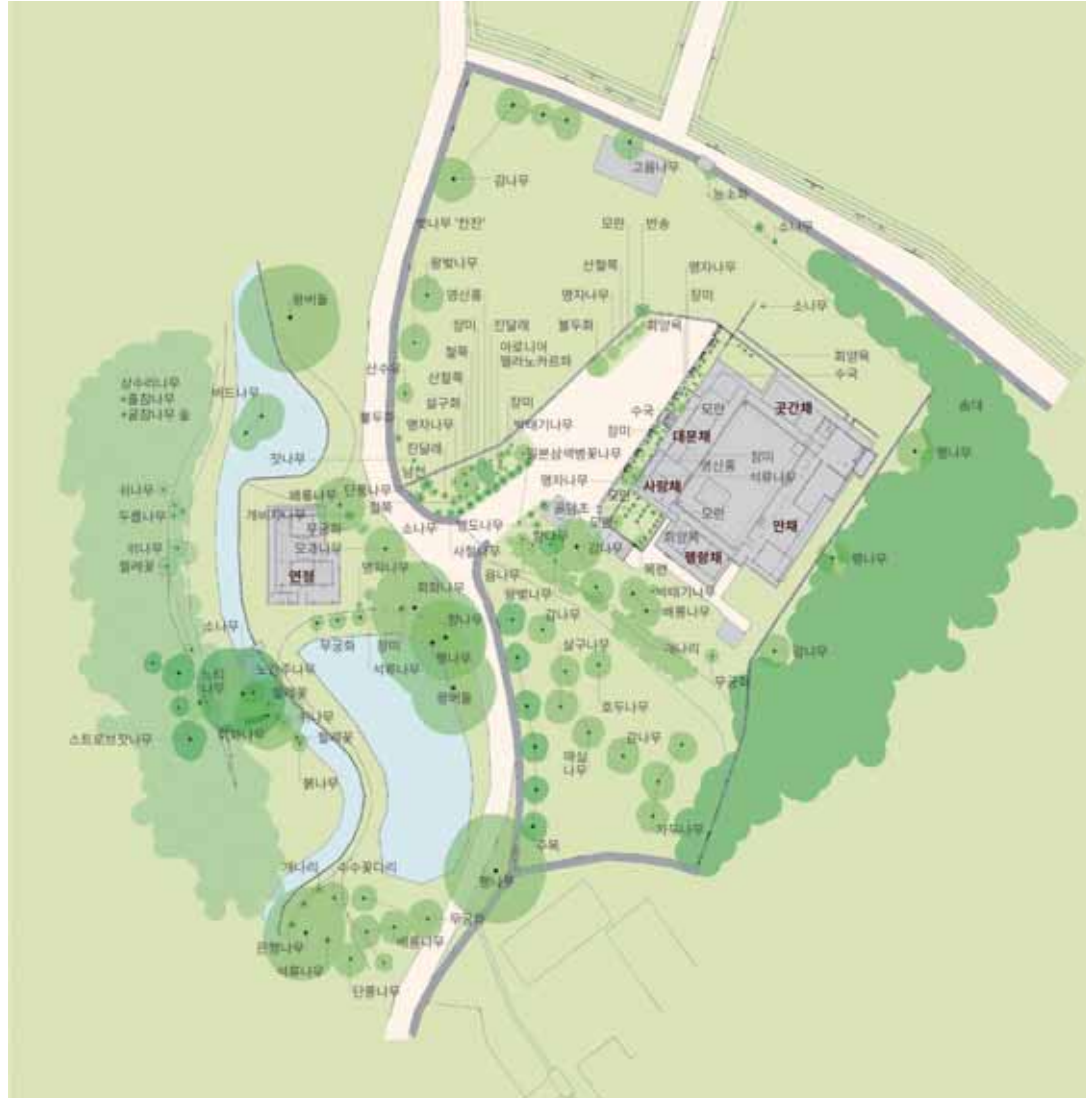
안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 일년생 초화류를 주로 식재한 화단이 하나 조성되어 있다. 앞마당에는 문간채의 앞과

측면으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장미, 회양목, 수국, 국화 등의 관상식물이 심겨 있고, 본채의 동쪽에는 단을 두어 자두나무, 호두나무, 살구나무 등 각종 과수가 심긴 후원을 조성해두었다. 본채 앞에는 가장자리에 명자나무, 산철쭉, 모란, 불두화 등의 화목류를 심은 채마밭이 조성되어 있어 언정과 본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고택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식재된 오래된 감나무와 안채 뒤쪽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대숲이 운치 있다.





## 연정고택 식재도면



## 연정고택 식물 목록

-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 개나리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 개비자나무 *Cephalotaxus koreana* Nakai
- 고욤나무 *Diospyros lotus* L.
- 굴담초 *Caragana sinica* (Buc'hoz) Rehder
- 굴참나무 *Quercus variabilis* Blume
- 노간주나무 *Juniperus rigida* Siebold & Zucc.
-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 능소화 *Campsis grandiflora* (Thunb.) K.Schum.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두릅나무 *Aralia elata* (Miq.) Seem.
- 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 Zucc.
- 명자나무 *Chaenomeles speciosa* (Sweet) Nakai
- 모과나무 *Pseudocarya sinensis* (Thouin) C.K.Schneid.
- 모란 *Paeonia suffruticosa* Andr.
- 무궁화 *Hibiscus syriacus* L.
- 박태기나무 *Cercis chinensis* Bunge
- 반송 *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
-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 백목련 *Magnolia denudata* Desr.
- 버드나무 *Salix koreensis* Andersson
- 빛나무 '간잔' *Prunus 'Kanzan'*
- 불두화 *Viburnum opulus* f. *hydrangeoides* (Nakai) Hara
- 붉나무 *Rhus javanica* L.
-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 산철쭉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év.) Sugim.
- 살구나무 *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
- 상수리나무 *Quercus acutissima* Carruth.
- 석류나무 *Punica granatum* L.
- 설구화 *Viburnum plicatum* Thunb.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 송대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 수수꽃다리 *Syringa oblata* var. *dilatata* (Nakai) Rehder
- 쉬나무 *Evodia daniellii* Hemsl.
- 스트로브잣나무 *Pinus strobus* L.
- 아까시나무 *Robinia pseudoacacia* L.
- 아로니아 멜라노카르파 *Aronia melanocarpa* (Michx.) Elliott
- 앵도나무 *Prunus tomentosa* Thunb.
- 영산홍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 왕버들 *Salix chaenomeloides* Kimura
- 왕벚나무 *Prunus yedoensis* Matsum.
- 음나무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 일본삼색벚꽃나무 *Weigela coraensis* Thunb.
- 자두나무 *Prunus salicina* Lindl.
- 잣나무 *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
- 장미 *Rosa* cv.
- 졸참나무 *Quercus serrata* Thunb.
-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 질레꽃 *Rosa multiflora* Thunb.
- 철쭉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 팽나무 *Celtis sinensis* Pers.
- 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L.
- 호두나무 *Juglans regia* Dode
- 회양목 *Buxus koreana* Nakai ex T.H.Chung & al.
- 회화나무 *Sophora japonica* L.



# 삼가헌고택

고즈넉한 방지가 아름다운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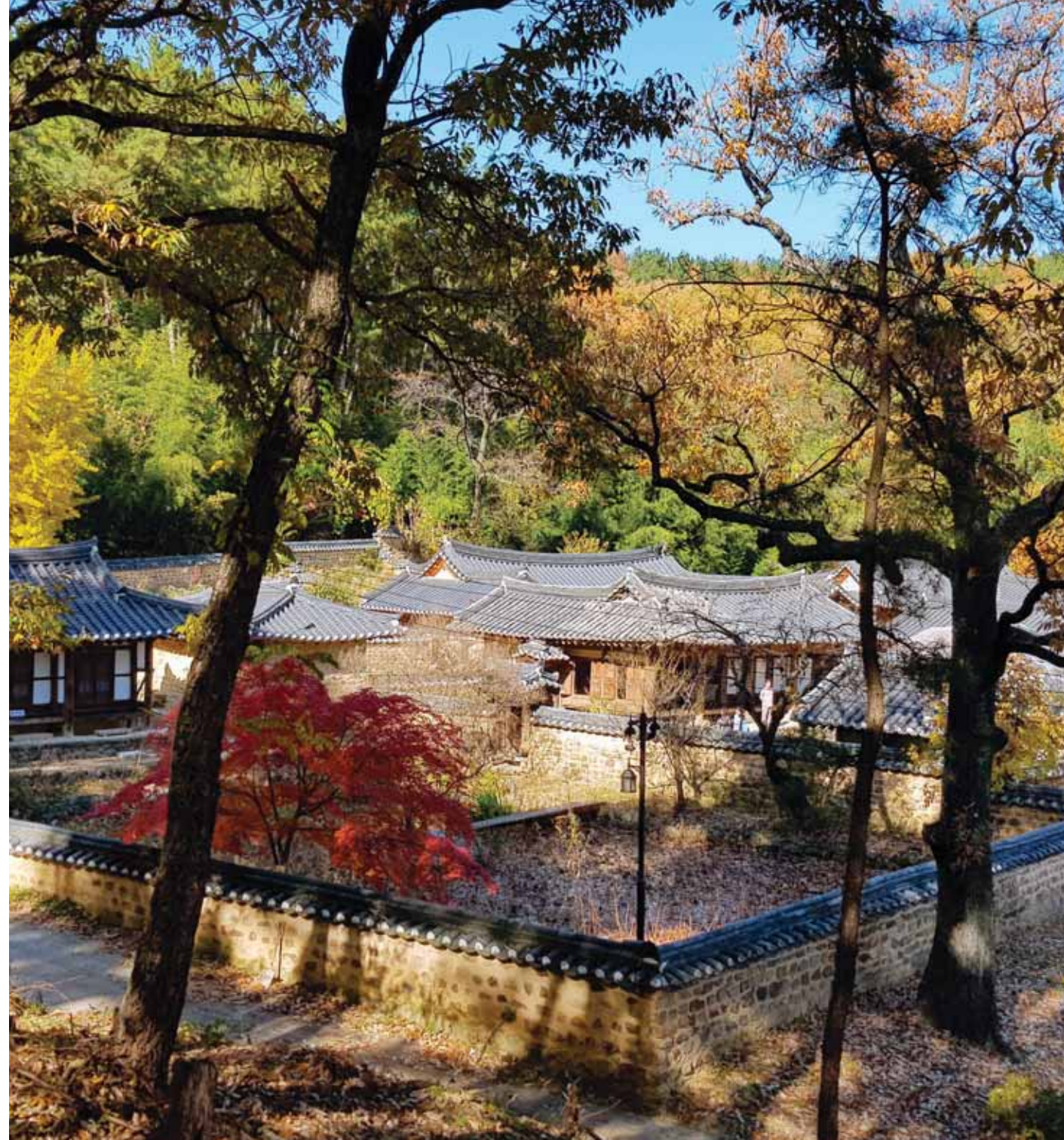




## 선비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을 담은 삼가헌

국가민속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는 삼가헌고택은 순천 박씨 집성촌인 달성군 하빈면 묘동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은 사방이 가려진 아늑한 지형 안에 들어가 자리하고 있어서 차가 다니는 큰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풍수지리적으로 고택은 용산龍山을 배산으로 지니고 있으며, 남동향으로 지어져 있다. 고택의 서쪽에 위치한 언덕 너머로는 낙동강이 흐르는데, 지금은 하천 정비사업으로 사라졌지만 한 때 강가에 큰 모래사장이 있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이 모래사장에서 명군이 둔전을 일구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그 모래사장을 뽕밭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삼가헌은 여러 차례 개축 및 확장되면서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삼가헌이 처음 조성된 것은 1769년으로 조성자는 사육신 중 한 명인 박팽년의 11대손 박성수인데, 본래는 초가집이었고 그 당호는 중용의 한 구절 “자왈 천하국가가균야 작록가사야 백인가도야 중용불가능야子曰天下國家可均也，爵祿可辭也，白刃可蹈也，中庸不可能也<sup>\*)</sup>”에서 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삼가헌이 지어진 그 이듬해에는 삼가헌의 서쪽에 파산서당巴山書堂이라는 4칸 규모의 일자형 서재가 지어졌고, 1826년에는 박성수의 아들 박광석이 본래의 초가를 헐고 안채와 사랑채를 기와집으로 새로 지었다. 이 때 건물의 기단을 쌓으면서 삼가헌 남쪽의 부지에서 많은 흙을 파냈는데, 1874년에 박광석의 손자 박규현이 이 자리에 못을 파고 연꽃을 심어 연지로 꾸몄다. 연지를 만들면서 본래 더 서북쪽에 있던 파산서당을 연못가로 옮겨서 개축하였는데, 개축할 때 앞으로 누마루를 1칸 늘어 지으며 하엽정荷葉亭이라는 당호를 붙였다. 안채는 2009년 불에 타 새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

<sup>\*)</sup> 자왈 천하국가가균야 작록가사야 백인가도야 중용불가능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국가는 가히 다스릴 수 있고, 관직과 녹봉은 가히 사양할 수 있으며, 날카로운 칼날도 가히 밟을 수 있지만, 중용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주자의 주석에 따르면 천하를 다스림은 지지, 작록을 거부하는 것은 인선, 칼날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용맹에 해당하여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모두 갖추었다는 의미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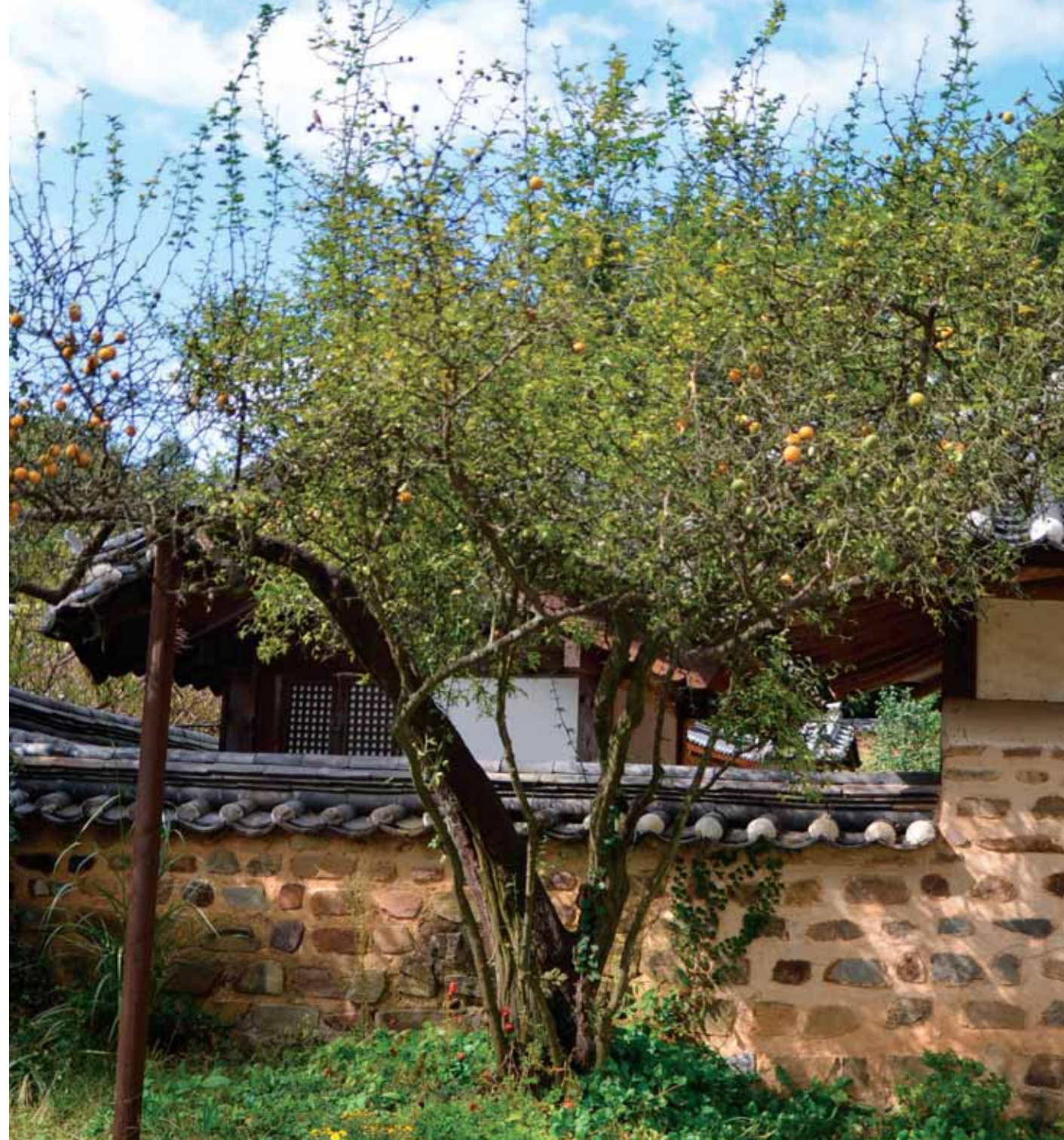


## 탱자가 된 유자

삼가현고택의 대문채 좌측에는 100년은 넘어 보이는 탱자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탱자나무는 일반적으로 생울타리 정도로나 쓰이는, 그리 귀하게 대접받지 않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가 이렇게 대문 밖 잘 보이는 곳에 심겨 있는 것에는 사연이 있다고 한다. 본래 이 나무는 옛날 제주목사를 지냈던 이웃의 친척이 제주도에서 가져와 선물한 굴나무였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굴나무가 흔한 나무가 아니었으므로 삼가현택에서는 이를 귀히 여겨 집 대문 앞에 보기 좋게 심었다 한다. 그러나 삼가현과 친척 집 모두에서 굴나무는 열매가 작아지고 탱자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비록 굴화위지橘化爲枳의 고사가 아직도 전해지기는 하지만, 단순히 북방에 익숙하였다 하여 종이 바뀔 리는 없고, 아마도 제주도에서 가져온 묘목이 탱자 대목에 접붙여진 묘목이어서 달성군의 겨울철 추위에 접수인 굴나무는 얼어 죽고, 대목인 탱자만 살아남은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재미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탱자나무는 아직도 역사와 세월을 담고 아름답게 서 있다.

탱자나무  
*Poncirus trifoliata* (L.) Raf. ▶





## 달빛에 빛나는 뒷산의 배꽃



대문채를 지나면 탁 트인 사랑마당에 들어서게 된다. ㄴ자로 지어진 사랑채는 전면 4칸, 측면 4칸 규모의 건물로 안채를 가리고 있으며, 안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채의 동쪽으로 난 중문채를 통과해야 한다. 중문채는 기와지붕이 아닌 초가지붕이 얹혀 있는데, 이는 청빈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사랑채의 서쪽에는 별당공간으로 진입하는 협문 옆으로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본래 여기에는 오래된 홍매가 한 그루 심겨 있었지만 나무가 노쇠하여 고사하고 말았다 한다. 홍매가 없어지자 고택이 허전해져서 현재 7개 품종을 곳곳에 새로 식재하였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매실나무의 다양한 품종들을 계속 수집하여 고택 전체를 매실나무 품종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안채는 전면 6칸, 측면 5칸 규모의 ㄴ자 형태 건물로 사랑채와 합쳐져 사대부가 본채의 전형인 ㄱ자 구조를 형성한다. 안마당에는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으나, 중문채에서 나와 안채로 들어가는 길목에 차폐 목적으로 칠자화가 심겨있고, 안채 뒤 후원에는 경사면에 화계가 꾸며져 있다. 이 화계에는 한때 대나무가 무성하였다고 하나, 지나치게 번져 제거하였고 담장 바깥에만 남아 있다. 현재 화계에 매실나무를 식재해 두었으며, 호박, 박하 등을 심어 채마밭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화계의 가장 높은 단에는 무성한 두릅나무 덤불 옆으로 배나무 종류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삼가헌 주인은 5월에 이 나무에 꽃이 피어 달빛이 비추는 광경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신다.



■ 안마당의 광경. 지붕 너머 오른쪽으로는 배나무가, 왼쪽으로는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대숲이 보인다. ▶



## 연못을 에워싼 화초와 고목이 어우러진 하엽정

사랑마당의 서쪽으로 난 일각문 안으로 들어가면 별당인 하엽정荷葉亭이 세워져 있는 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하엽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ㄱ자형 건물로, 본래의 파산서당 건물에 이어 붙인 누마루에는 장식이 아름다운 난간을 설치하여 정자처럼 꾸몄다. 하엽정과 그 앞의 연지는 민가정원 중 그 조성 시기와 조성 의도가 확실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파산서당기巴山書堂記』에서는 “동협은 이연현怡燕軒이니 이신연거怡神燕居한다는 뜻으로 만경晚景을 수습하여 병을 조리하며 여생을 보내려 함이오, 서협은 몽양재蒙養齋니 동몽童蒙을 바르게 기른다는 뜻인데 후손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가풍을 이어가려는 염원에서 나온 바이다.”라고 기록하여 영천의 연정과 비슷하게 노후의 거처와 자제의 교육을 목적으로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엽정 앞의 연못은 전형적인 방지원도方池圓島의 형태로, 지안과 섬의 석축은 막돌쌓기로 쌓았으며, 하엽정과 연못 사이에는 1단의 화단을 두었다. 입수구는 3개로 연못의 서쪽에 흐

르는 개울의 물을 끌어오도록 되어있으며, 출수구는 무너미로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섬까지는 외나무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주인의 말에 따르면 본래 섬에는 다리가 없었으나 정원의 식물을 관리하기 위해 다리를 놓았다고 한다.

『파산서당기』에 따르면 별당 조성 당시에는 소나무, 버드나무, 밤나무, 참나무류, 가래나무, 옷나무 등 용재수와 유용수 위주로 식재를 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배롱나무, 모란, 해당화, 배나무, 복사나무, 백목련, 내장산에서 구해다 심었다는 단풍나무 등 관상수가 주를 이룬다. 옷나무와 버드나무는 근래까지도 남아 있었으나 둘 다 벼락을 맞았다고 한다. 옷나무는 죽었고, 버드나무는 맹아가 돌아 다시 자라나기는 하였지만 봄철에 하얀 솜털을 가진 열매가 많이 날려서 제거하였다고 한다. 하엽정의 뒤편에는 작은 채마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채소와 매실 대목을 키우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 공간은 서남쪽과 동북쪽의 참죽나무와 은행나무가 매우 인상적이다.





별당공간

## 굴참나무와 굴참나무 숲

하엽정에 앉아 연못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담 너머 오른쪽으로 현 주인의 고조가 심은 것이라고 전해지는 높이 20m 가량의 키 큰 굴참나무가 돋보이고, 그 옆 구릉 위로는 무성한 굴참나무와 소나무 숲이 눈에 들어온다. 삼가현의 주인은 최근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날씨가 자주 발생해 굴참나무 자연림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 삼가현고택 식재도면



## 삼가현고택 식물 목록

-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Mill.) Swingle
-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 개나리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 굴참나무 *Quercus variabilis* Blume
-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 능소화 *Campsis grandiflora* (Thunb.) K.Schum.
- 다래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 대추나무 *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
- 돌배나무 *Pyrus pyrifolia* (Burm.f.) Nakai
-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
- 두릅나무 *Aralia elata* (Miq.) Seem.
- 매죽나무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 라일락 *Syringa vulgaris* L.
- 만첩백도 *Prunus persica* f. *alboplana* C.K.Schneid.
- 만첩홍도 *Prunus persica* f. *rubroplena* C.K.Schneid.
- 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 Zucc.
- 모란 *Paeonia suffruticosa* Andr.
- 무화과나무 *Ficus carica* L.
- 미선나무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 밤나무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 배나무 *Pyrus pyrifolia* var. *culta* (Makino) Nakai
-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 백목련 *Magnolia denudata* Desr.
- 복사나무 *Prunus persica* (L.) Batsch
- 분꽃나무 *Viburnum carlesii* Hemsl.
- 불두화 *Viburnum opulus* f. *hydrangeoides* (Nakai) Hara
- 붉은인동 *Lonicera* × *heckrottii* Rehder
- 뽕나무 *Morus alba* L.
- 사과나무 *Malus pumila* Mill.
- 산철쭉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év.) Sugim.
- 살구나무 *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
- 삼지닥나무 *Edgeworthia chrysantha* Lindl.
- 석류나무 *Punica granatum* L.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 솔대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 영산홍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 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 오죽 *Phyllostachys nigra* (Lodd.) Munro
- 왕대 *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Zucc.
- 은행나무 *Ginkgo biloba* L.
- 음나무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 인동덩굴 *Lonicera japonica* Thunb.
- 자목련 *Magnolia liliflora* Desr.
- 작살나무 *Callicarpa japonica* Thunb.
-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 줄사철나무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Miq.) Rehder
-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 참죽나무 *Cedrela sinensis* Juss.
- 초피나무 *Zanthoxylum piperitum* (L.) DC.
- 치자나무 *Gardenia jasminoides* Ellis
- 칠자화 *Heptacodium miconioides* Rehder
- 탕자나무 *Poncirus trifoliata* Raf.
- 해당화 *Rosa rugosa* Thunb.
- 회화나무 *Sophora japonica* L.
- 흰해당화 *Rosa rugosa* 'Alba'



# 박진사고가

.....  
토담의 문양과 덩굴식물이  
돋보이는 정원  
.....





## 수려한 담장



고성 청광리에 위치하고 있는 박진사고가는 1850년대 즈음 중수된 조선 후기 고가로,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9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밀양 박씨 10대 종손인 박상호 씨가 관리하며 한옥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고택은 정방형 부지에 동남향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5칸짜리 대문채를 지나면 6칸 규모의 사랑채 겸 중문채와 4칸 규모의 헛간채가 둘러싼 사랑마당이 나타나고, 중문을 지나면 5칸 규모의 안채, 4칸짜리 곳간채, 그리고 작은 광채로 둘러싸인 안마당에 들어서게 된다. 4칸 규모의 별당채는 높은 담에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다.

박진사고가를 방문하면 고택을 두른 100년 넘는 담장에 가장 먼저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집 주위를 두른 담장은 황토와 기와, 돌을 섞어 쌓은 토석담으로 꽤 높은 편인데, 밝은 색의 황토와 연한 회색의 돌, 빛바랜 기와조각이 나타내는 문양이 매우 아름답고 정감 있다. 담장을 따라 대문 앞에 서면 붉은 칠의 효자정려 현판이 눈에 띄는데, 현 소유주의 7대조 박효근朴孝根의 효행을 기려 세워진 것이라고 하며, 박진사고가는 고택의 명칭도 박효근의 아들 박한회朴瀚會가 진사시에 합격하면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대문채를 지나면 사랑마당에 들어서게 된다. 대문채의 왼쪽 담장 아래로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감나무, 음나무, 반송, 단풍나무, 석류나무, 배롱나무, 개암나무, 영산홍, 사향, 사철나무 등의 나무들이 심겨 있다.





안채

## 시선을 가려주는 안채 화단

사랑채와 연결된 문간채를 통과하면 안마당으로 들어서게 된다. 중문과 광채 앞에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안채를 차폐하기 위해 조성된 화단이 하나씩 있어 반송, 팽팡나무, 사철나무, 남천 등 상록수와 진달래, 영산홍 등 철쭉류, 이스라지, 모란, 자목련, 실유카 등의 화목류들이 풍성하게 심겨 있다. 화단에 심긴 꽃들은 봄에 피는 것들이 대부분이

나, 안채와 별당채를 구분하는 담장을 따라 올라간 능소화는 광채 앞 수국과 더불어 여름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안채 우측으로는 담으로 둘러싸인 채마밭이 하나 있는데, 채마밭을 두른 담장을 따라서는 영산홍, 황매화, 옥잠화 같은 관상식물 외에도 오갈피나무, 고로쇠나무, 차나무 등 유용식물이 많이 심겨 있다.





## 담장의 덩굴식물

박진사고가의 정원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공간들을 구획 짓는 높고 견고하게 쌓은 담장이다. 담장은 그 자체의 색상과 무늬 만으로도 곱지만, 그 밑에 여러 종류의 덩굴식물을 심어 타고 올라가게 하여 더욱 아름답다.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운 담쟁이덩굴, 꽃이 향기로운 인동덩굴, 열매의 색과 형태가 아름다운 노박덩굴, 달콤한 과실을 지니는 다래 등 여러 종류의 덩굴식물이 심겨 있으나,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담장마다 올라가 담장 위 기와 사이로 우아한 곡선을 지닌 줄기를 낭창하게 엮은 능소화다.

능소화는 중국 동부의 복건성, 광둥성, 광서성, 호북성, 산둥성, 섬서성이 원산지인 식물로, 예전부터 백송, 측백나무 등과 함께 중국에 사행을 다녀온 관리들이 가져와 귀하게 여기며 길렀던 식물이다. 여름 하늘을 배경으로 강렬한 주홍빛의 큼지막한 꽃을 피워 하늘을 농락하는 꽃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을 받은 이 꽃은 반가에서 많이 길러서, 혹은 양반만이 키울 수 있었다 하여 ‘양반꽃’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그 화려한 꽃은 박진사댁의 반가로서의 위세를 나타내기도 하였겠지만, 높은 담에 가려진 생활을 했을 박진사댁의 안주인들에게 좋은 볼거리와 위안이 되어 주지 않았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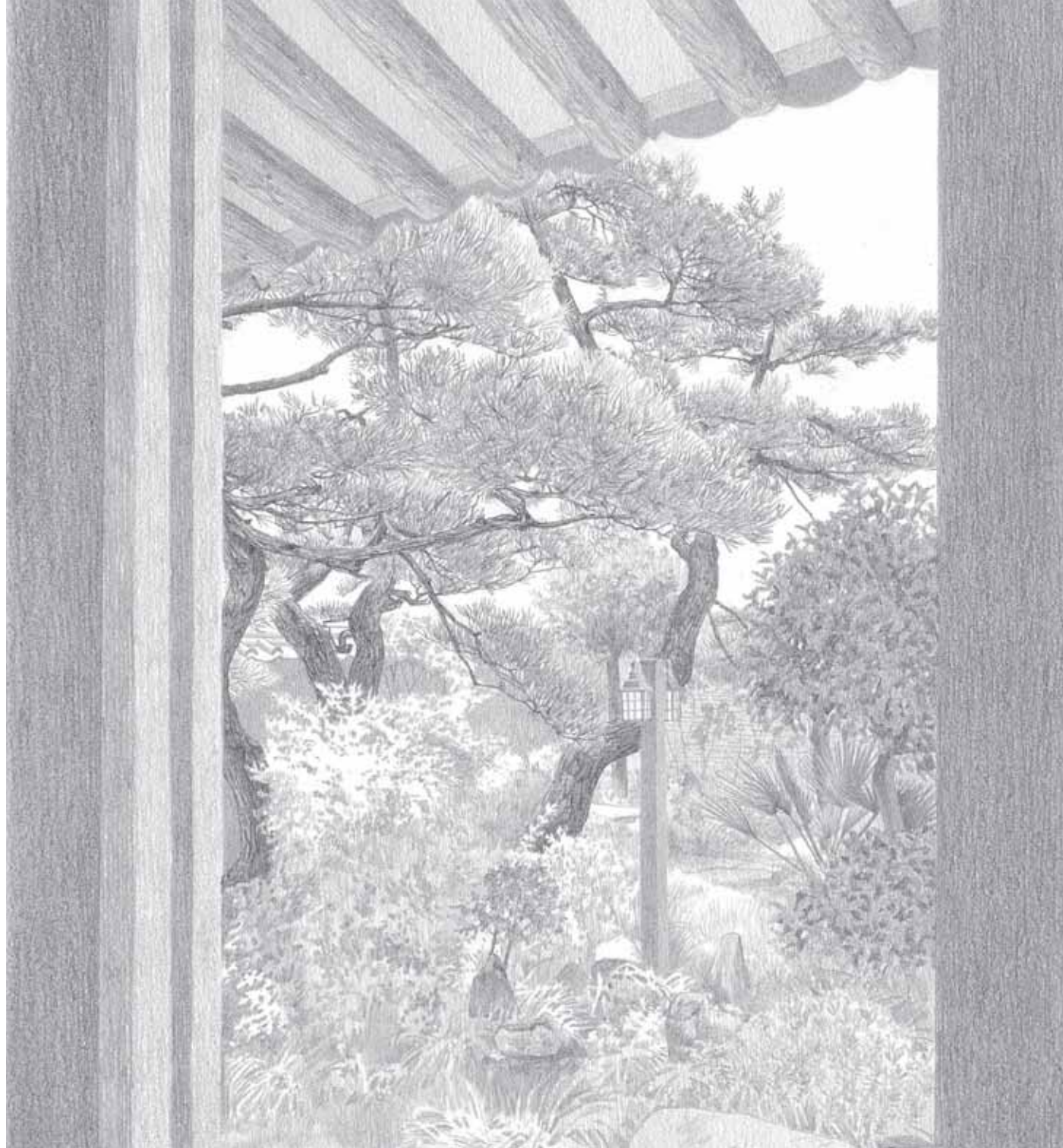




## 마루에서 내다보는 정원



사랑마당에서 동쪽에 난 협문으로 들어가면 별당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 별당채의 마당 중앙에는 세 그루의 큰 소나무가 심겨 시선을 사로잡으며, 그 아래로는 작은 연못이 있어 그 주변으로 남천, 동백나무, 오갈피나무, 영산홍, 유카, 감태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식물이 정원석과 어우러져 있다. 담장 아래와 우물가를 따라 수국, 은목서, 구골나무, 진달래 등의 화목류와 매실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두릅나무, 차나무 등 관상가치가 높은 유용수들이 심겨 있어 푸르고 아늑한 쉼터가 된다. 화단 곳곳에는 사시사철 녹색을 자랑하는 당종려와 맥문동, 겨울철 붉은 열매가 영롱한 만년청이 여기저기 심겨 있어 다소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화단의 조성기법과 남천, 만년청 등의 식재식물에서 미루어보건대 가옥이 일제강점기 동안 개축되면서 정원 역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국 문물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전통가옥에 조화롭게 접목시킨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박진사고가 식재도면



## 박진사고가 식물 목록

-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 감태나무 *Lindera glauca* (Siebold & Zucc.) Blume
- 개암나무 *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 고로쇠나무 *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 구골나무 *Osmanthus heterophyllus* (G.Don) P.S.Green
- 팽팡나무 *Ilex crenata* Thunb.
- 남천 *Nandina domestica* Thunb.
- 노박덩굴 *Celastrus orbiculatus* Thunb.
- 느릅나무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 능소화 *Campsis grandiflora* (Thunb.) K.Schum.
- 다래 *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 담나무 *Broussonetia kazinoki* Siebold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 당중려 *Trachycarpus wagnerianus* Hort. ex Becc.
-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
- 두릅나무 *Aralia elata* (Miq.) Seem.
- 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 Zucc.
- 모란 *Paeonia suffruticosa* Andr.
- 무화과나무 *Ficus carica* L.
- 박태기나무 *Cercis chinensis* Bunge
- 반송 *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
-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 백목련 *Magnolia denudata* Desr.
-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 삼지닥나무 *Edgeworthia chrysantha* Lindl.
- 서향 *Daphne odora* Thunb.
- 석류나무 *Punica granatum* L.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 수국 *Hydrangea macrophylla* (Thunb.) Ser.
- 실유가 *Yucca filamentosa* L.
- 앵도나무 *Prunus tomentosa* Thunb.
- 영산홍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 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 옥향 *Juniperus chinensis* 'Globosa'
- 유가 *Yucca gloriosa* L.
- 은목서 *Osmanthus × fortunei* Carr
- 음나무 *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
- 이스라지 *Prunus japonica* var. *nakaii* (H.Lév.) Rehder
- 자목련 *Magnolia liliflora* Desr.
-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 줄사철나무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Miq.) Rehder
- 쥐똥나무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 꿩레꽃 *Rosa multiflora* Thunb.
- 차나무 *Camellia sinensis* L.
- 철쭉류 *Rhododendron pulchrum* Sweet
- 청미래덩굴 *Smilax china* L.
- 치자나무 *Gardenia jasminoides* Ellis
- 편백 *Chamaecyparis obtusa* (Siebold & Zucc.) Endl.
- 황매화 *Kerria japonica* (L.) DC.
- 회양목 *Buxus koreana* Nakai ex T.H.Chung & al.
- 회화나무 *Sophora japonica* L.



# 사운고택

.....  
뒷산 노송과 어우러져 기품이 있는  
정원  
.....





## 선비들의 풍류가 담긴 가옥

사운고택은 홍성군 원골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행정구역상 소재지는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989-22이며, 국가민속문화재 제198호로 지정되어 있다. 홍성 사운고택은 양주 조씨의 종가로, 현재는 12대 종손 조환웅 씨가 한옥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사운고택의 건립자는 조태벽趙泰碧으로, 17세기 말에 중추첨지부사를 지냈던 인물이라고 한다. 사운고택은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전통가옥으로, 개방적인 진리관을 지닌 기호학파를 따랐던 건립주의 사상이 반영되어 소통이 원활한 구조로 지어졌다고 한다. 한편 '구름 같은 선비'라는 의미를 지니는 고택의 명칭 사운士雲은 고택 주인의 고종조였던 사운 조중세趙重世의 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고택의 규모는 한때 99칸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60여 칸만이 남아 있으며, 고택의 공간은 사랑채, 안채, 별당 영역으로 나뉜다. 조원은 주로 고택 앞의 연지 주변, 사랑채와 별당 사이의 화단, 안채 뒷면의 후원에 집중되어 있다.

고택의 진입로 옆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팔꽃나무가 열식되어 인상적이다. 고택주는 앞으로 이런 공간을 계속 가꾸어 고택 일대를 수목원처럼 가꿀 계획이라고 한다.





입구

## 나무로 둘러싸인 연지

원골마을 입구의 팽나무와 은행나무 두 노거수를 지나 사운고택의 입구로 들어서면 먼저 방지원도형의 연못이 반긴다. 연지 중앙의 섬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 심겨 있고, 그 가장자리에는 소나무, 곱벚나무, 당단풍나무, 능수버들, 산수유, 산딸나무, 홍자단, 목련 등의 관상수들이 연못을 에워싸고 있다. 연못과 대문채 사이에는 개울이 흐르는데, 개울변에도 주목, 복자기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일본목련, 보리수나무, 감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정연하게 심겨 있다.

고택 주인의 말에 따르면 본래 이 연못은 집안의 땅이 지나치게 습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 한다. 최근에 다시 정비한 공간인데, 복원 중 연못 가장자리의 석축이 과거보다 2단 가량 높게 복원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과거에는 연못 주변에 ‘청한루’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 철쭉과 장미가 화려한 마당



사운고택의 사랑채는 전면 5칸, 측면 1칸 반의 일자형 건물이다. 당호는 우화정 雨花亭인데, 이는 조선 영조대의 문신 자하紫霞 신위申緯가 지어준 이름으로 당대 사랑채 앞마당에 심겨 있던 빛나무에서 꽃잎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붙인 것이라 한다. 사랑채의 오른쪽에는 낮잠을 즐기는 누각이라는 의미의 수루睡樓라는 편액이 걸린 누마루가 있는데, 바닥이 높게 지어져 앉아서도 사랑채 앞의 화단과 담 너머의 풍광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다. 누마루의 담에는 기와 조각으로 ‘건곤감리乾坤坎離’와 ‘천하태평天下泰平’이라는 글씨를 만들어 장식하였는데, 다른 고택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장식이다. 사랑채의 당호부터 누마루의 장식에 이르기까지 풍류와 멋이 느껴진다. 누마루에서 내려다 보이는 화단에는 커다란 금송 두 그루와 산철쭉, 영산홍, 황철쭉, 모란, 겹꽃밤해당화, 층층갈고리동굴레 등 다양한 화훼류가 심겨 있어 봄철 꽃들이 만개하면 무척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된다.

### 겹꽃밤해당화

*Rosa roxburghii* Tratt.

▪ 곳간 오른쪽 화단에 심긴 여러 화목류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밤해당화의 원예품종인 겹꽃밤해당화이다. 중국 서부와 남서부가 원산지인 겹꽃밤해당화는 주로 3월에서 7월 사이에 피는데, 누에고치를 삶아 명주실로 자아낼 시기에 핀다고 하여 한자로는 소사화縲絲花라고 한다. 8월에서 10월 사이에 황색이나 황록색으로 익는 열매는 표면에 가시가 많이 들어나 있는데, 겹꽃밤해당화라는 이름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열매는 가시가 많지만 새콤달콤해 식용이 가능하며, 술로 담그거나 약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 ▶





## 뒷산의 푸른 소나무와 작은 텃밭의 어울림

사랑채에서 우측으로 돌아 공간과 화단 사이를 지나는 소로를 따라 들어가면 별당채가 나타난다. 사운고택의 별당채는 출입문을 따로 두어 사랑채, 안채와 독립된 구조를 지닌 점에서 독특한데, 처갓집 식구 등 집안의 여자들을 찾아온 손님을 배려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별당채의 당호는 열방원으로, 백제의 마지막 왕이 부흥운동을 벌였던 주류성으로 추정되는 산성 중 하나인 학성산성의 다른 이름에서 딴 것이라 한다. 본래 사랑채와 별당채 사이에는 담이 있었으나, 현재는 통행이 편하도록 헐었다고 한다.

별당채 앞의 마당은 기단 앞에 푸른 푸성귀와 자단선선인장이 자라는 화단이 놓여 아기자기하고 정감 있는 멋을 지니는 반면, 별당채 너머로는 장대한 멋을 지닌 장송들이 뻗어 있어 대비된다. 사운고택 뒷산의 송림은 풍수적으로 지형의 기운이 약한 것을 보하기 위해 식재했었는데, 소나무가 더 많아 뒷산을 꼭 채웠던 때도 있었지만, 6.25 전쟁을 거치며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후원

## 박태기나무와 안개나무가 있는 후원

별당채의 뒤로 향하면 경사지에 다양한 나무가 자리잡은 후원이 펼쳐진다. 후원에는 자귀나무, 개나리, 진달래, 영산홍, 배롱나무 등 여러 가지의 화목류가 심겨 있는데, 특히 박태기나무가 언덕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박태기나무는 중국이 원산지로서, 예로부터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다. 이에 얽힌 고사가 하나 있는데, 중국 양나라 때 남경에 사는 삼형제가 부모 사후 유산을 동일하게 나누기로 하고, 한 그루 밖에 없는 박태기나무도 세 포기씩 나누어 가져가기로 하자 나무가 하룻밤 새 고사하였고, 이를 보고 반성한 형제들이 재산을 합쳐 살기로 하자 다시 푸르게 되살아났다고 한다. 박태기나무는 독특하게도 꽃이 줄기 말단부의 새 가지에 달리지 않고 이미 목질화된 줄기의 중간에 촘촘히 모여서 달리는 특성이 있는데, 모여 달리는 꽃의 모습도 우애라는 상징성을 지니게 되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러한 상징성과 더불어 자줏빛으로 피는 꽃이 아름다워 예부터 반가에서 종종 심어온 나무이며, 사

운고택에서도 봄철에 진한 자줏빛으로 피어 다른 화목류와 더불어 후원을 밝히면 그 광경이 무척 아름다울 것이다.

후원의 나무 중 또 흥미로운 것으로는 안개나무가 있다. 안개나무는 중국 중부에서 유럽에 이르는 지역이 원산지인 옷나무과의 관목으로, 꽃이 지고난 후 소화경이 신장하면서 소화경에 난 털이 갓빛을 띠는 분홍색으로 변해 화서 전체가 마치 안개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개나무라고 한다. 안개나무는 국내에서 그리 흔히 심는 나무는 아니므로 직접 삼목하여 번식시킨 공조팝나무들과 더불어 정원주의 정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다.

별당 뒤로는 돌계단이 하나 나 있는데, 계단을 걸어가 험문을 열고 고택 밖으로 나르면 학성산성 유적지로 이어진다. 계단에 올라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드리우는 그늘 아래에서 고택을 바라보는 풍경이 운치 있다.





## 사운고택 식재도면



## 사운고택 식물 목록

-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 개비자나무 *Cephalotaxus koreana* Nakai
- 겹꽃밤해당화 *Rosa roxburghii* Sweet
- 골담초 *Caragana sinica* (Buc'hoz) Rehder
- 곰솔 *Pinus thunbergii* Parl.
- 공작단풍 *Acer palmatum* var. *dissectum* (Thunb.) Miq.
- 공조팝나무 *Spiraea cantoniensis* Lour.
- 금송 *Sciadopitys verticillata* (Thunb.) Siebold & Zucc.
- 길마가지나무 *Lonicera harai* Makino
- 꼬리조팝나무 *Spiraea salicifolia* L.
- 팽팡나무 *Ilex crenata* Thunb.
- 낙우송 *Taxodium distichum* (L.) Rich.
- 남천 *Nandina domestica* Thunb.
-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 능소화 *Campsis grandiflora* (Thunb.) K.Schum.
- 능수버들 *Salix pseudolasiogyne* H.Lév.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당단풍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 대추나무 *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
- 땃강나무 *Abelia mosanensis* T.H.Chung ex Nakai
- 라일락 *Syringa vulgaris* L.
- 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 Zucc.
- 명자나무 *Chaenomeles speciosa* (Sweet) Nakai
- 모란 *Paeonia suffruticosa* Andr.
- 목련 *Magnolia kobus* DC.
- 무궁화 *Hibiscus syriacus* L.
- 박태기나무 *Cercis chinensis* Bunge
- 반송 *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 Uyeki
- 배나무 *Pyrus pyrifolia* var. *culta* (Makino) Nakai
-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 백목련 *Magnolia denudata* Desr.
- 뽕나무 '칸잔' *Prunus 'Kanzan'*
- 보리수나무 *Elaeagnus umbellata* Thunb.
- 복자기 *Acer triflorum* Kom.
- 분비나무 *Abies nephrolepis* (Trautv.) Maxim.
- 불두화 *Viburnum opulus* f. *hydrangeoides* (Nakai) Hara
-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 산딸나무 *Cornus kousa* F.Buerger ex Miq.
-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 산철쭉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év.) Sugim.
- 섬잣나무 *Pinus parviflora* Siebold & Zucc.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 솜대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 안개나무 *Cotinus coggygria* Scop.
- 앵도나무 *Prunus tomentosa* Thunb.
- 영산홍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 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 & Maxim.) S.Y.Hu
- 옥매 *Prunus glandulosa* f. *albiplena* Koehne
- 으뜸당굴 *Akebia quinata* (Thunb.) Decne.
- 이대 *Pseudosasa japonica* (Siebold & Zucc. ex Steud.) Makino
- 이팝나무 *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 일본목련 *Magnolia obovata* Thunb.
- 자귀나무 *Albizia julibrissin* Durazz.
- 자단선선인장 *Opuntia humifusa* (Raf.) Raf.
- 자목련 *Magnolia liliflora* Desr.
- 장미 *Rosa* cv.
-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 짙레꽃 *Rosa multiflora* Thunb.
- 참조팝나무 *Spiraea fritschiana* Schneid.
- 코니카가문비나무 *Picea glauca* var. *albertiana* 'Conica'
- 탕자나무 *Poncirus trifoliata* Raf.
- 팽나무 *Celtis sinensis* Pers.
- 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L.
- 홍자단 *Cotoneaster horizontalis* Decne.
-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 황금회화나무 *Styphnolobium japonicum* 'Aurea'
- 황철쭉 *Rhododendron japonicum* f. *flavum* (Miyoshi) Nakai
- 회양목 *Buxus koreana* Nakai ex T.H.Chung & al.
- 회일나무 *Euonymus alatus* f. *ciliatodentatus* (Franch. & Sav.) Hiyama
- 흰줄무늬사사 *Pleioblastus fortunei* (Van Houtte) Nakai



# 채원병가옥

가려짐과 드러남의 미학





입구

## 고봉산 자락에 아늑히 안긴 가옥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는 채원병가옥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지역 부농의 집으로, 안채는 1860년에, 사당은 1901년에 건립되었다. 건축물의 건립 시기상 건립자는 가옥의 현 소유주인 채원병 씨의 5대조 채동승蔡東升(1829~1875)으로 추정된다. 채원병가옥은 특이하게도 일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북향으로 지어져 있다.

이 가옥의 터는 풍수적으로 볼 때 지네가 불빛을 만나 움직이지 않는 형세를 지녀 기운이 오래 지속되는 길지라고 한다. 그래서 북향임에도 불구하고 집터를 취했다고 한다. 본래 현재의 3배 규모까지 달했던 가옥은 안채, 사랑채, 사당만 남아 있는데, 현 소유주의 조부 때 농지개혁으로 땅을 잃으면서 많은 건물들이 헐리게 되었다고 한다.





## 보일 듯 말 듯, 나무 뒤로 숨은

채원병가옥을 방문하면 사랑채 앞마당으로 향하는 진입로 양옆으로 군식된 철쭉들이 먼저 반긴다. 본래는 각종 건물이 서 있던 자리로, 길의 동쪽에는 방앗간과 연못이, 서쪽에는 행랑채 등의 건물들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다만 방앗간 자리에 헛간으로 보이는 건물이 1채 서있을 뿐이고, 나머지 공간에는 영산홍 등 철쭉류와 동백나무, 섬잣나무가 무성하다.

군식된 철쭉들을 지나면 사랑채 앞마당에 들어서게 되는데, 철쭉 식재지와 마당 사이의 경계에는 진입로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각각 한 그루씩 서 있으며, 입구의 양측으로 은행나무가 대식되어 있어 마당과 가옥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운치 있게 가린다. 문간채와 사랑채 앞에도 화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매우 오래된 소나무 세 그루가 있어 대문과 사랑채 누마루를 차폐하는 한편 외부와 내부를 구획한다. 이처럼 수목을 심어 바깥과 안을 차폐한 것이 채원병가옥 정원이 지닌 조원기법상 특징이다.

▣ 진입로 동측에 군식된 철쭉류와 앞마당을 차폐하는 은행나무. ▶





## 늘 푸른 노송을 즐길 수 있는 사랑채 누마루

사랑채의 서쪽에는 정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뒷마루보다 한 단 높게 지어진 누마루가 있다. 누마루에 앉아 보면 누마루의 북쪽과 서쪽에는 세살 분합문이 설치되어 여단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동쪽의 안마당 방향으로는 간소한 미가 돋보이는 평난간만 설치되어 있어 대문 앞 노송의 시원한 그늘과 푸른 이끼가 앉은 구불구불한 줄기를 번거로움 없이 사시사철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누마루 앞의 화계에는 철쭉류와 주목을 심었고, 그 너머로는 입구 양옆으로 군식된 철쭉류가 보인다. 본래 가옥 북쪽에 위치한 오성산五聖山을 안산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사이에 국도가 건설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한때는 오성산과 그 사이의 전답들이 누마루에서 내려다보이는 경관에 멋을 더했을 것이다.

누마루의 서쪽으로는 관상수들로 둘러싸인 공터가 하나 있는데, 오래된 배롱나무 한 그루와 그 주변으로 치솟은 측백나무, 편백나무, 삼나무가 인상적이다. 본래 바깥사랑채가 위치하던 구역으로, 바깥사랑채 마당에 화단이 있어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들이 잔존한 것으로 추측된다.





## 두리기둥의 안채와 화계가 돋보이는 사당

사랑채 뒷면에 숨겨져 있는 안채건물은 일반 민가에서 보기 힘든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다. 본디 궁이나 사찰에서 사용되는 두리기둥이 지닌 위세에서 가택의 흥성했던 과거를 엿볼 수 있다. 안채의 마당은 사랑채 앞마당보다 좁은 편인데, 현재는 대문 앞으로 원형의 화단이 2개 있어 각 화단에 영산홍과 사철나무가 단독수로 심겨 있다. 과거에는 영산홍이 심긴 화단의 서측으로 사철나무가 1그루 더 심겨 있어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차폐 및 구분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사철나무가 없어지면서 화단의 면적이 그만큼 줄고 안마당이 보다 개방적인 느낌으로 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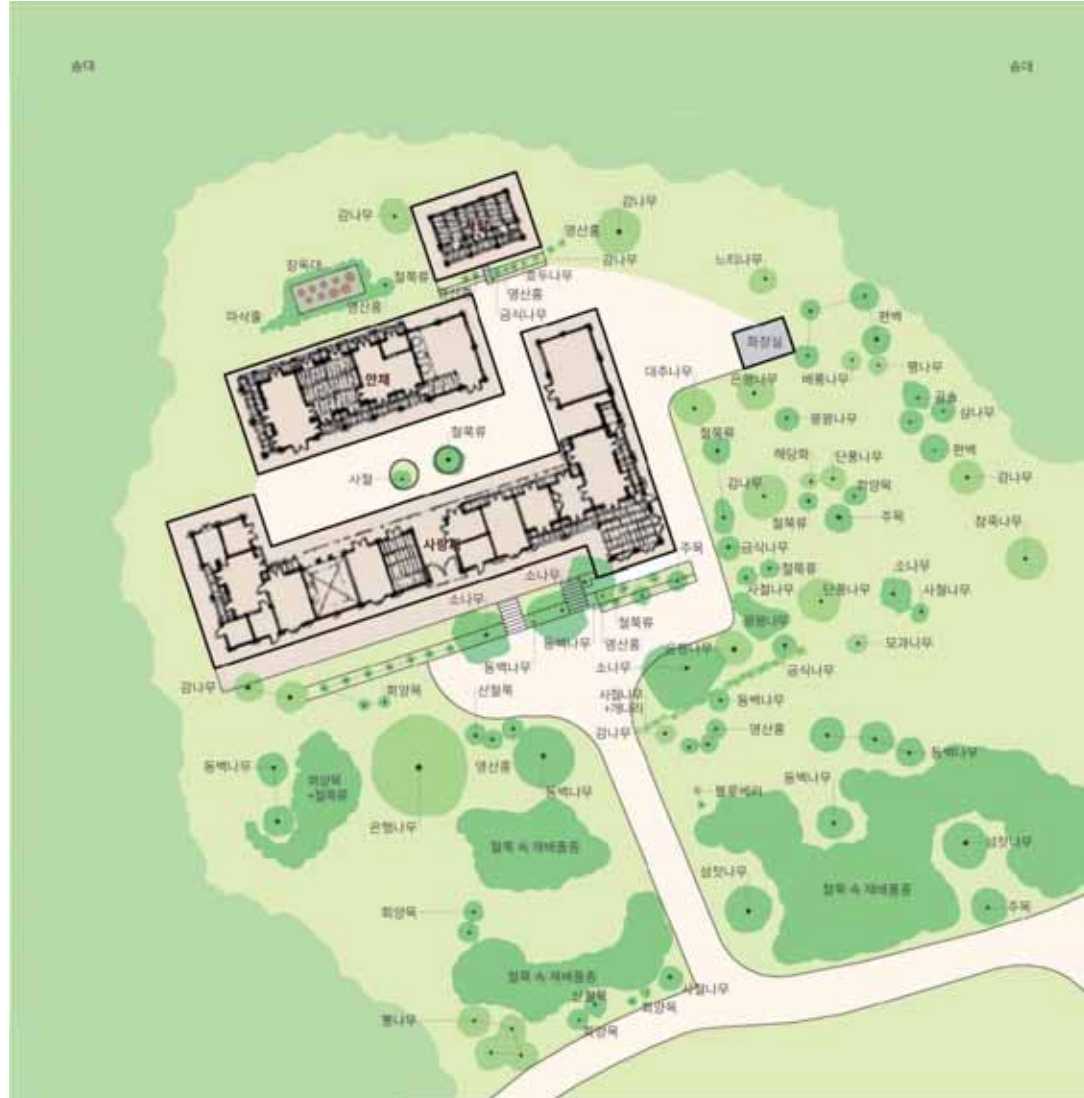
안채 뒤 후원에는 상록성의 반짝이는 잎을 지닌 마삭줄이 석축에 얹혀 있고, 그 위에 장독대와 사당이 있다. 장독대 주변으로는 철쭉류와 감나무, 호두나무 등의 유실수를 여러 그루 심었고, 사당 앞에는 화계를 설치하여 철쭉류와 금가루를 뿌린 듯한 혁질의 잎이 매력적인 금식나무를 식재해 두었다. 후원 가장자리에는 대숲이 무성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

■ 사랑방으로부터 안채를 가리는 영산홍과 사철나무. ▶





## 채원병가옥 식재도면



## 채원병가옥 식물 목록

-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 개나리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 골솔 *Pinus thunbergii* Parl.
- 금식나무 *Aucuba japonica* f. *variegata* (Dombrain) Rehder
- 팽팡나무 *Ilex crenata* Thunb.
-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대추나무 *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
-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
- 라일락 *Syringa vulgaris* L.
- 마삭줄 *Trachelospermum asiaticum* (Siebold & Zucc.) Nakai
- 모과나무 *Pseudocarya sinensis* (Thouin) C.K.Schneid.
- 무화과나무 *Ficus carica* L.
-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 붉나무 *Rhus javanica* L.
- 블루베리 *Vaccinium corymbosum* L.
- 뽕나무 *Morus alba* L.
- 사철나무 *Euonymus japonicus* Thunb.
- 산뽕나무 *Morus bombycis* Koidz.
- 산철죽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év.) Sugim.
- 삼나무 *Cryptomeria japonica* (L.f.) D.Don
- 섬잣나무 *Pinus parviflora* Siebold & Zucc.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 솔대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 식나무 *Aucuba japonica* Thunb.
- 영산홍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 은행나무 *Ginkgo biloba* L.
-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 참죽나무 *Cedrela sinensis* Juss.
- 캬퍼철죽 *Rhododendron kaempferi* Planch.
- 팽나무 *Celtis sinensis* Pers.
- 편백 *Chamaecyparis obtusa* (Siebold & Zucc.) Endl.
- 해당화 *Rosa rugosa* Thunb.
- 호두나무 *Juglans regia* Dode
- 회양목 *Buxus koreana* Nakai ex T.H.Chung & al.



# 학인당

.....  
땅속으로 이어진 돌계단 아래  
우물이 독특한 정원  
.....





## 궁중 건축양식을 도입한 고택 정원

전라북도 민속문화재 제8호인 전주 학인당은 수원 백씨 인재공파 전주 문중의 종가로 1908년에 건립되었으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이다. 소재지는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전주시 완신구 향교길 45이며, 현재는 수원 백씨 인재공파의 종손 백광제 씨가 한옥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학인당을 지은 인재忍齋 백낙중은 조정에서 승훈랑 관직을 내려 치하할 정도로 당대 전주에서 효자로 이름이 났던 인물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는 많은 재산을 기부하였다고도 한다. 훗날 인재가 맏아들 백남혁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여 집을 짓고자 하자, 고종이 경복궁 중건에 기여한 바에 대한 화답으로 궁중 도편수를 보내어 집을 짓도록 했다. 이 덕에 학인당은 7량가<sup>7</sup>의 큰 구조나 막새기와의 사용 등 궁중 건축양식이 상류층 가옥에 도입된 전형적인 예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는 520여 평 정도의 규모이지만, 본래 2,000여 평의 대지에 지어진 99칸의 대저택이었다고 한다. 고택의 명칭 학인당은 백남혁이 지은 것으로, 아버지의 덕을 기리고 그를 본받는다는 의미에서 호 인재에서 인忍 자를 따 지은 것이라고 한다.

<sup>7</sup>7량가 전통 건축에서 5량가 형식에 도리 두 개를 더하여 지붕에 총 일곱 개의 도리를 쓴 건물. 일반 민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큰 사찰이나 궁궐 등에서 사용된다.



▪ 고종이 도편수를 보내면서 같이 보냈다고 전해지는 달гут돌. ▶



## 안채 앞 화단에 선 소나무

학인당의 중심정원은 안채의 앞마당이다. 문간채를 지나 마당에 들어서면 푸른 잔디가 깔린 마당에 정원석으로 둘러쳐진 화단이 먼저 반기는데, 마당에 깔린 잔디와 부정형인 화단의 형태는 개항 후 일본 등 외국의 문물에서 영향을 받아 나타난 조원양식이다. 화단의 가장자리에는 굴뚝과 석등, 석탑이 세워져 있고, 화단에 심긴 키 큰 소나무와 오래된 실화백이 특히 아름답다. 실화백은 일본이 원산지인 측백나무과의 상록침엽교목 화백의 재배품종으로, 생육속도가 느려 2m 가량 자라는 데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보통 최대 4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학인당의 실화백은 크기가 그에 준해 고택의 연륜을 간접적으로 증언해준다. 교목 하부에는 팥나무, 차나무, 서향, 영산홍, 황철쭉 등의 화목류와 원추리, 국화, 꽃잔디 등의 숙근초가 심겨 있고, 그 사이로 프렌치메리골드, 백일홍 등의 일년초들이 만발하여 색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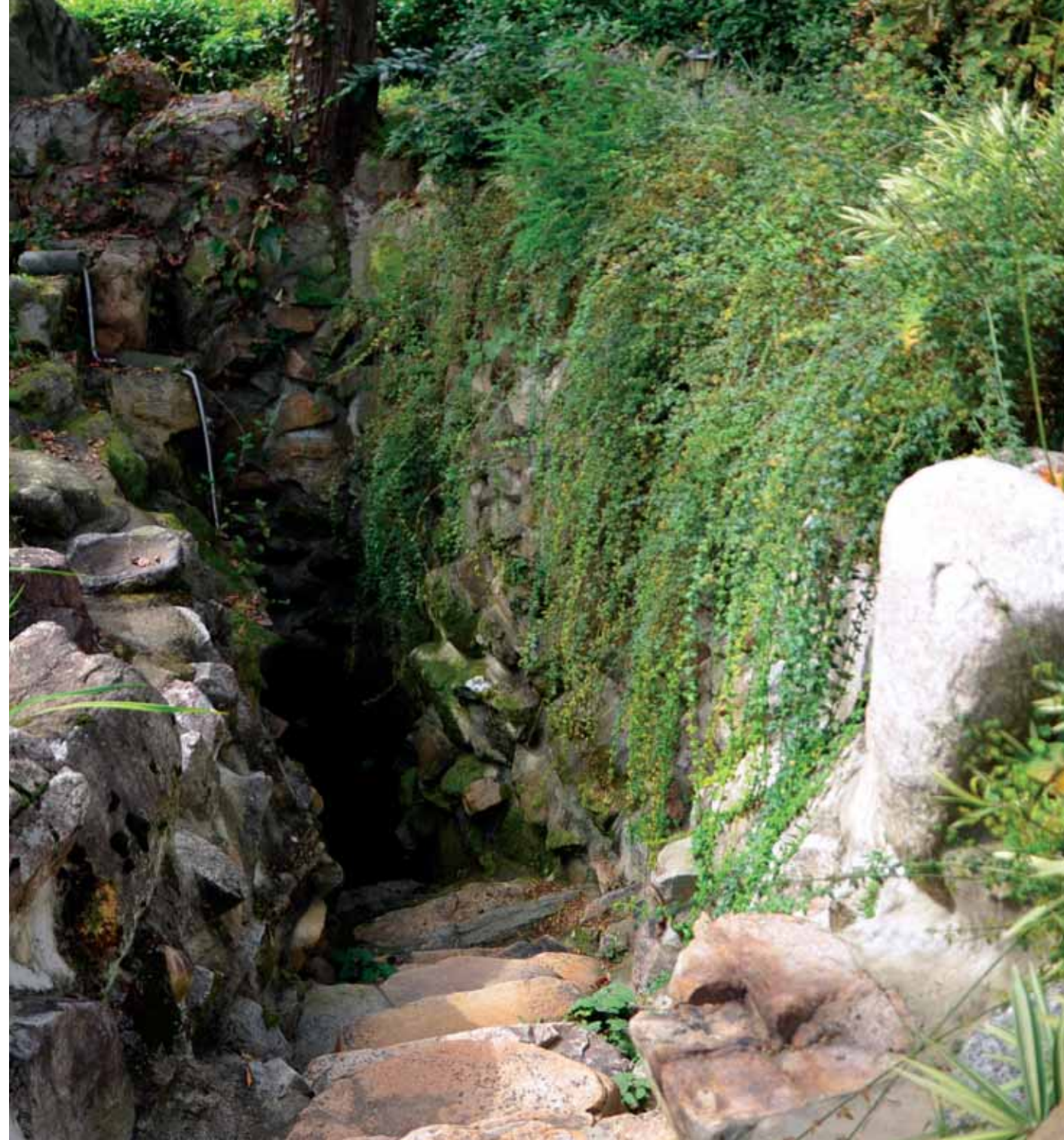




## 조선지와 용천



구한말에 건축된 학인당은 망국의 풍파를 겪기도 한 곳이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자, 백낙중은 마당에 한반도를 뒤집은 형태의 연못 '조선지朝鮮池'를 파 세상이 다시 뒤집혀 조선의 국권이 회복되기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연못의 측면에는 돌계단이 놓인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석벽을 따라 영춘화가 늘어지고 흰줄무늬사사와 약모밀이 돌 틈에 돌아나 있다. 계단을 닫고 내려가면 사계절 섭씨 10도를 유지하고 물맛 좋은 샘물이 솟아난다. 이 땅샘을 '용천龍泉'이라고 하는데 학인당을 건축하기 이전인 250년 동안 있었던 우물자리를 파서 만들었다고 한다. 연못의 물은 여기서 길어 올린 것이라 한다. 샘 입구와 주변에는 거북모양 바위 등의 장식이 많은데, 이에 샘을 후대에도 메우지 말라는 조상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 골담초 *Caragana sinica* (Buc'hoz) Rehder
- 곰솔 *Pinus thunbergii* Parl.
- 구글나무 *Osmanthus heterophyllus* (G.Don) P.S.Green
- 금목서 *Osmanthus fragrans* var. *aurantiacus* Makino
- 꼬리조팝나무 *Spiraea salicifolia* L.
- 팽팡나무 *Ilex crenata* Thunb.
- 남천 *Nandina domestica* Thunb.
- 능소화 *Campsis grandiflora* (Thunb.) K.Schum.
- 단풍나무 *Acer palmatum* Thunb.
- 두릅나무 *Aralia elata* (Miq.) Seem.
- 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 Zucc.
- 명자나무 *Chaenomeles speciosa* (Sweet) Nakai
- 모과나무 *Pseudocarya sinensis* (Thouin) C.K.Schneid.
- 모란 *Paeonia suffruticosa* Andr.
- 무궁화 *Hibiscus syriacus* L.
- 배롱나무 *Lagerstroemia indica* L.
- 빈도리 *Deutzia crenata* Siebold & Zucc.
-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 산철죽 *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év.) Sugim.
- 삼지닥나무 *Edgeworthia chrysantha* Lindl.
- 서향 *Daphne odora* Thunb.
- 석류나무 *Punica granatum* L.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 수국 *Hydrangea macrophylla* (Thunb.) Ser.
- 실화백 *Chamaecyparis pisifera* 'Filifera'
- 앵도나무 *Prunus tomentosa* Thunb.
- 영산홍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 영춘화 *Jasminum nudiflorum* Lindl.
- 유카 *Yucca gloriosa* L.
- 이스라지 *Prunus japonica* var. *nakaii* (H.Lév.) Rehder
- 일본조팝나무 *Spiraea japonica* L.f.
- 자목련 *Magnolia liliflora* Desr.
- 작살나무 *Callicarpa japonica* Thunb.
- 장미 *Rosa* cv.
-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Nakai
- 좀작살나무 *Callicarpa dichotoma* (Lour.) K.Koch
-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 차나무 *Camellia sinensis* L.
- 치자나무 *Gardenia jasminoides* Ellis
- 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L.
- 화살나무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 황매화 *Kerria japonica* (L.) DC.
- 황철죽 *Rhododendron japonicum* f. *flavum* (Miyoshi) Nakai



# 부록

번호	국명	학명	과명	고문헌 등재	고택			
					경남	경북	대구	
					박진사 고가	소우당	연정 고택	삼가현
1	댕강나무	<i>Abelia mosanensis</i> T.H.Chung ex Nakai	인동과					
2	미선나무	<i>Abeliophyllum distichum</i> Nakai	물푸레나무과				○	
3	전나무	<i>Abies holophylla</i> Maxim.	소나무과	●	○			
4	분비나무	<i>Abies nephrolepis</i> (Trautv.) Maxim.	소나무과					
5	단풍나무	<i>Acer palmatum</i> Thunb.	단풍나무과	●	○	○	○	○
6	공작단풍	<i>Acer palmatum</i> var. <i>dissectum</i> (Thunb.) Miq.	단풍나무과					
7	고로쇠나무	<i>Acer pictum</i> subsp. <i>mono</i> (Maxim.) Ohashi	단풍나무과		○			
8	당단풍나무	<i>Acer pseudosieboldianum</i> (Pax) Kom.	단풍나무과			○		
9	복자기	<i>Acer triflorum</i> Kom.	단풍나무과					
10	다래	<i>Actinidia arguta</i> (Siebold & Zucc.) Planch. ex Miq.	다래나무과	●	○			○
11	가죽나무	<i>Ailanthus altissima</i> (Mill.) Swingle	소태나무과	●				○
12	으름덩굴	<i>Akebia quinata</i> (Thunb.) Decne.	으름덩굴과	●				
13	자귀나무	<i>Albizia julibrissin</i> Durazz.	콩과	●				
14	푸조나무	<i>Aphananthe aspera</i> (Thunb.) Planch.	느릅나무과					
15	두릅나무	<i>Aralia elata</i> (Miq.) Seem.	두릅나무과		○	○	○	○
16	자금우	<i>Ardisia japonica</i> (Thunb.) Blume	저금우과					
17	야로니아 멜라노카르파	<i>Aronia melanocarpa</i> (Michx.) Elliott	장미과					○
18	금식나무	<i>Aucuba japonica</i> f. <i>variegata</i> (Dombrain) Rehder	층층나무과					
19	식나무	<i>Aucuba japonica</i> Thunb.	층층나무과					
20	닥나무	<i>Broussonetia kazinoki</i> Siebold	뽕나무과	●	○			
21	회양목	<i>Buxus koreana</i> Nakai ex T.H.Chung & al.	회양목과	●	○	○	○	
22	좁쌀살나무	<i>Callicarpa dichotoma</i> (Lour.) K.Koch	마편초과					

고택								용도								재배종
전남				전북		충남		식용	섬유용	약용	관상용	사료용	산업용	염료용	목재용	
백운동 정원	쌍산재	오현 고택	윤철하 고택	존재 고택	채원병 가옥	확인당	사운 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국명	학명	과명	고문헌 등재	고택			재배종
					경남	경북	대구	
					박진사 고가	소우당	연정 고택	
23	작살나무	<i>Callicarpa japonica</i> Thunb.	마편초과				○	
24	동백나무	<i>Camellia japonica</i> L.	차나무과	●	○		○	
25	동백나무 '난반코'	<i>Camellia japonica</i> 'Nanbanko'	차나무과					
26	애기동백	<i>Camellia sasanqua</i> Thunb.	차나무과					
27	차나무	<i>Camellia sinensis</i> L.	차나무과	●	○			
28	능소화	<i>Campsis grandiflora</i> (Thunb.) K.Schum.	능소화과	●	○	○	○	
29	골담초	<i>Caragana sinica</i> (Buc'hoz) Rehder	콩과	●		○		
30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Siebold & Zucc.	참나무과	●			○	
31	참죽나무	<i>Cedrela sinensis</i> Juss.	멀구슬나무과			○	○	
32	푼지나무	<i>Celastrus flagellaris</i> Rupr.	노박덩굴과			○		
33	노박덩굴	<i>Celastrus orbiculatus</i> Thunb.	노박덩굴과		○			
34	팽나무	<i>Celtis sinensis</i> Pers.	느릅나무과		○	○		
35	개비자나무 '파스티기아타'	<i>Cephalotaxus harringtonia</i> 'Fastigiata'	개비자나무과					●
36	개비자나무	<i>Cephalotaxus koreana</i> Nakai	개비자나무과			○		
37	박태기나무	<i>Cercis chinensis</i> Bunge	콩과	●	○	○	○	
38	명자나무	<i>Chaenomeles speciosa</i> (Sweet) Nakai	장미과			○		
39	편백	<i>Chamaecyparis obtusa</i> (Siebold & Zucc.) Endl.	측백나무과		○			
40	실화백	<i>Chamaecyparis pisifera</i> 'Filifera'	측백나무과					●
41	이팝나무	<i>Chionanthus retusus</i> Lindl. & Paxton	물푸레나무과				○	
42	유자나무	<i>Citrus junos</i> Siebold ex Tanaka	운향과	●				●
43	누리장나무	<i>Clerodendrum trichotomum</i> Thunb.	마편초과					
44	산딸나무	<i>Cornus kousa</i> F.Buerger ex Miq.	층층나무과				○	
45	산수유	<i>Cornus officinalis</i> Siebold & Zucc.	층층나무과	●		○	○	
46	히어리	<i>Corylopsis gotoana</i> var. <i>coreana</i> (Uyeki) T.Yamaz.	조록나무과					
47	개암나무	<i>Corylus heterophylla</i> Fisch. ex Trautv.	자작나무과		○			
48	안개나무	<i>Cotinus coggygia</i> Scop.	웃나무과				○	●

고택								용도								재배종	
전남				전북		충남		식용	섬유용	약용	관상용	사료용	산업용	염료용	목재용		
백운동 정원	쌍산재	오현 고택	윤철하 고택	존재 고택	채원병 가옥	학인당	사운 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국명	학명	과명	고문헌 등재	고택			
					경남	경북	대구	
					박진사 고가	소우당	연정 고택	삼가헌
49	홍자단	<i>Cotoneaster horizontalis</i> Decne.	장미과					
50	삼나무	<i>Cryptomeria japonica</i> (L.f.) D.Don	낙우송과	●				
51	꾸지뽕나무	<i>Cudrania tricuspidata</i> (Carr.) Bureau ex Lavallée	뽕나무과	●				
52	서향 '아우레오마르키나타'	<i>Daphne odora</i> 'Aureomarginata'	팔꽃나무과					
53	서향	<i>Daphne odora</i> Thunb.	팔꽃나무과	●	○			
54	굴거리나무	<i>Daphniphyllum macropodum</i> Miq.	굴거리나무과					
55	황칠나무	<i>Dendropanax morbiferum</i> H.Lév.	두릅나무과	●				
56	빈도리	<i>Deutzia crenata</i> Siebold & Zucc.	범의귀과					
57	감나무	<i>Diospyros kaki</i> Thunb.	감나무과	●	○	○	○	○
58	고욤나무	<i>Diospyros lotus</i> L.	감나무과	●		○	○	
59	삼지닥나무	<i>Edgeworthia chrysantha</i> Lindl.	팔꽃나무과		○			○
60	보리수나무	<i>Elaeagnus umbellata</i> Thunb.	보리수나무과	●				
61	오갈피나무	<i>Eleutherococcus sessiliflorus</i> (Rupr. & Maxim.) S.Y.Hu	두릅나무과	●	○			○
62	비파나무	<i>Eriobotrya japonica</i> (Thunb.) Lindl.	장미과	●				
63	두충	<i>Eucommia ulmoides</i> Oliv.	두충과	●				
64	화살나무	<i>Euonymus alatus</i> (Thunb.) Siebold	노박덩굴과	●				
65	회잎나무	<i>Euonymus alatus</i> f. <i>ciliatodentatus</i> (Franch. & Sav.) Hiyama	노박덩굴과					
66	줄사철나무	<i>Euonymus fortunei</i> var. <i>radicans</i> (Miq.) Rehder	노박덩굴과		○			○
67	사철나무 'BR2012'	<i>Euonymus japonicus</i> 'BR2012'	노박덩굴과					
68	사철나무	<i>Euonymus japonicus</i> Thunb.	노박덩굴과	●	○	○	○	
69	사스레피나무	<i>Eurya japonica</i> Thunb.	차나무과					○
70	쉬나무	<i>Evodia daniellii</i> Hemsl.	운향과				○	
71	팔손이	<i>Fatsia japonica</i> (Thunb.) Decne. & Planch.	두릅나무과					
72	무화과나무	<i>Ficus carica</i> L.	뽕나무과		○			○
73	벽오동	<i>Firmiana simplex</i> (L.) W.F.Wight	벽오동과	●				
74	개나리	<i>Forsythia koreana</i> (Rehder) Nakai	물푸레나무과	●			○	○

고택							용도							재배종
전남			전북		충남	식용	섬유용	약용	관상용	사료용	산업용	염료용	목재용	
백운동 정원	쌍산재	오현 고택	윤철하 고택	존재 고택	채원병 가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국명	학명	과명	고문헌 등재	고택			
					경남	경북	대구	
					박진사 고가	소우당	연정 고택	삼가현
75	치자나무	<i>Gardenia jasminoides</i> Ellis	꼭두서니과	●	○			○
76	은행나무	<i>Ginkgo biloba</i> L.	은행나무과	●		○		○
77	주엽나무	<i>Gleditsia japonica</i> Miq.	콩과	●				
78	송악	<i>Hedera rhombea</i> (Miq.) Bean	두릅나무과					
79	칠자화	<i>Heptacodium miconioides</i> Rehder	인동과					○
80	무궁화	<i>Hibiscus syriacus</i> L.	아욱과	●			○	
81	수국	<i>Hydrangea macrophylla</i> (Thunb.) Ser.	범의귀과	●	○			
82	호랑가시나무 '부르포르디'	<i>Ilex cornuta</i> 'Burfordii'	감탕나무과					
83	광평나무	<i>Ilex crenata</i> Thunb.	감탕나무과		○			
84	영춘화	<i>Jasminum nudiflorum</i> Lindl.	물푸레나무과					
85	가래나무	<i>Juglans mandshurica</i> Maxim.	가래나무과	●				
86	호두나무	<i>Juglans regia</i> Dode	가래나무과	●			○	
87	옥향	<i>Juniperus chinensis</i> 'Globosa'	측백나무과		○			
88	가이즈카향나무	<i>Juniperus chinensis</i> 'Kaizuka'	측백나무과					
89	향나무	<i>Juniperus chinensis</i> L.	측백나무과	●		○	○	
90	향나무 '매니'	<i>Juniperus chinensis</i> 'Maney'	측백나무과					
91	눈향나무	<i>Juniperus chinensis</i> var. <i>sargentii</i> Henry	측백나무과					
92	노간주나무	<i>Juniperus rigida</i> Siebold & Zucc.	측백나무과					
93	옴나무	<i>Kalopanax septemlobus</i> (Thunb.) Koidz.	두릅나무과	●	○	○	○	○
94	황매화	<i>Kerria japonica</i> (L.) DC.	장미과	●	○			
95	흰배롱나무	<i>Lagerstroemia indica</i> f. <i>alba</i> (W.A.Nicholson) Rehder	부처꽃과					
96	배롱나무	<i>Lagerstroemia indica</i> L.	부처꽃과	●	○	○	○	○
97	월계수	<i>Laurus nobilis</i> L.	녹나무과					
98	광나무	<i>Ligustrum japonicum</i> Thunb.	물푸레나무과	●				
99	쥐똥나무	<i>Ligustrum obtusifolium</i> Siebold & Zucc.	물푸레나무과		○			
100	감태나무	<i>Lindera glauca</i> (Siebold & Zucc.) Blume	녹나무과		○			

고택								용도								재배종	
전남				전북		충남		식용	섬유용	약용	관상용	사료용	산업용	염료용	목재용		
백운동 정원	쌍산재	오현 고택	윤철하 고택	존재 고택	채원병 가옥	확인당	사운 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국명	학명	과명	고문헌 등재	고택		
					경남	경북	대구
					박진사 고가	소우당	연정 고택
101	붉은인동	<i>Lonicera × heckrottii</i> Rehder	인동과				○
102	길마가지나무	<i>Lonicera harai</i> Makino	인동과				
103	인동덩굴	<i>Lonicera japonica</i> Thunb.	인동과	●			○
104	구기자나무	<i>Lycium chinense</i> Mill.	가지과	●			
105	개물푸레나무	<i>Maackia amurensis</i> var. <i>buergeri</i> C.K.Schneid.	콩과				
106	후박나무	<i>Machilus thunbergii</i> Siebold & Zucc.	녹나무과				
107	황목련	<i>Magnolia acuminata</i> (L.) L.	목련과				
108	백목련	<i>Magnolia denudata</i> Desr.	목련과	●	○	○	○
109	목련	<i>Magnolia kobus</i> DC.	목련과	●			
110	자목련	<i>Magnolia liliflora</i> Desr.	목련과	●	○		○
111	일본목련	<i>Magnolia obovata</i> Thunb.	목련과	●			
112	함박꽃나무	<i>Magnolia sieboldii</i> K.Koch	목련과				
113	뿔남천	<i>Mahonia japonica</i> (Thunb.) DC	매자나무과				
114	예덕나무	<i>Mallotus japonicus</i> (Thunb.) Müell.Arg.	대극과				
115	사과나무	<i>Malus pumila</i> Mill.	장미과	●			○
116	아그배나무	<i>Malus sieboldii</i> (Regel) Rehder	장미과				
117	멀구슬나무	<i>Melia azedarach</i> L.	멀구슬나무과	●			
118	뽕나무	<i>Morus alba</i> L.	뽕나무과	●	○		○
119	산뽕나무	<i>Morus bombycis</i> Koidz.	뽕나무과	●			
120	남천	<i>Nandina domestica</i> Thunb.	매자나무과		○		
121	협죽도	<i>Nerium oleander</i> L.	협죽도과	●			
122	자단선선인장	<i>Opuntia humifusa</i> (Raf.) Raf.	선인장과				
123	오평티아	<i>Opuntia</i> sp.	선인장과				
124	바위솔	<i>Orostachys japonica</i> (Maxim.) A.Berger	돌나물과		○		
125	은목서	<i>Osmanthus × fortunei</i> Carr	물푸레나무과		○		
126	목서	<i>Osmanthus fragrans</i> (Thunb.) Lour.	물푸레나무과	●			

고택								용도								재배종
전남				전북		충남		식용	섬유용	약용	관상용	사료용	산업용	염료용	목재용	
백운동 정원	쌍산재	오현 고택	윤철하 고택	존재 고택	채원병 가옥	학인당	사운 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국명	학명	과명	고문헌 등재	고택			
					경남	경북	대구	
					박진사 고가	소우당	연정 고택	삼가현
127	금목서	<i>Osmanthus fragrans</i> var. <i>aurantiacus</i> Makino	물푸레나무과					
128	구골나무	<i>Osmanthus heterophyllus</i> (G.Don) P.S.Green	물푸레나무과	●	○			
129	구골나무 '고시키'	<i>Osmanthus heterophyllus</i> 'Goshiki'	물푸레나무과					
130	모란	<i>Paeonia suffruticosa</i> Andr.	작약과	●	○	○	○	
131	담쟁이덩굴	<i>Parthenocissus tricuspidata</i> (Siebold & Zucc.) Planch.	포도과	●	○	○		○
132	오동나무	<i>Paulownia coreana</i> Uyeki	현삼과	●				
133	황벽나무	<i>Phellodendron amurense</i> Rupr.	운향과	●				
134	왕대	<i>Phyllostachys bambusoides</i> Siebold & Zucc.	벼과	●				○
135	오죽	<i>Phyllostachys nigra</i> (Lodd.) Munro	벼과					○
136	솜대	<i>Phyllostachys nigra</i> var. <i>henonis</i> (Bean) Stapf ex Rendle	벼과			○	○	○
137	코니카카문비나무	<i>Picea glauca</i> var. <i>albertiana</i> 'Conica'	소나무과					○
138	백송	<i>Pinus bungeana</i> Zucc. ex Endl.	소나무과					
139	반송	<i>Pinus densiflora</i> f. <i>multicaulis</i> Uyeki	소나무과		○		○	
140	소나무	<i>Pinus densiflora</i> Siebold & Zucc.	소나무과	●	○	○	○	○
141	잣나무	<i>Pinus koraiensis</i> Siebold & Zucc.	소나무과	●		○	○	
142	섬잣나무	<i>Pinus parviflora</i> Siebold & Zucc.	소나무과					
143	리기다소나무	<i>Pinus rigida</i> Mill.	소나무과					
144	스트로브잣나무	<i>Pinus strobus</i> L.	소나무과				○	
145	곰솔	<i>Pinus thunbergii</i> Parl.	소나무과			○		
146	돈나무	<i>Pittosporum tobira</i> (Thunb.) W.T.Aiton	돈나무과					
147	흰줄무늬사사	<i>Pleioblastus fortunei</i> (Van Houtte) Nakai	벼과					○
148	탕자나무	<i>Poncirus trifoliata</i> Raf.	운향과	●				○
149	살구나무	<i>Prunus armeniaca</i> var. <i>ansu</i> Maxim.	장미과	●		○	○	○
150	벚나무 재배품종	<i>Prunus</i> cv.	장미과					
151	옥매	<i>Prunus glandulosa</i> f. <i>albiplena</i> Koehne	장미과					○
152	이스라지	<i>Prunus japonica</i> var. <i>nakaii</i> (H.Lév.) Rehder	장미과	●	○			

고택								용도								재배종
전남				전북		충남		식용	섬유용	약용	관상용	사료용	산업용	염료용	목재용	
백운동 정원	쌍산재	오현 고택	윤철하 고택	존재 고택	채원병 가옥	학인당	사운 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국명	학명	과명	고문헌 등재	고택			
					경남	경북	대구	
					박진사 고가	소우당	연정 고택	삼가현
153	벚나무 '칸잔'	<i>Prunus 'Kanzan'</i>	장미과				○	
154	매실나무	<i>Prunus mume</i> Siebold & Zucc.	장미과	●	○	○	○	○
155	귀룽나무	<i>Prunus padus</i> L.	장미과					
156	복사나무	<i>Prunus persica</i> (L.) Batsch	장미과	●				○
157	만첩백도	<i>Prunus persica</i> f. <i>alboplana</i> C.K.Schneid.	장미과					○
158	만첩홍도	<i>Prunus persica</i> f. <i>rubroplena</i> C.K.Schneid.	장미과					○
159	복사나무 '핑크 캐스케이드'	<i>Prunus persica</i> 'Pink Cascade'	장미과					
160	벚나무류	<i>Prunus pseudocerasus</i> Lindl.	장미과					
161	자두나무	<i>Prunus salicina</i> Lindl.	장미과	●		○	○	
162	앵도나무	<i>Prunus tomentosa</i> Thunb.	장미과	●	○	○	○	
163	왕벚나무	<i>Prunus yedoensis</i> Matsum.	장미과			○	○	
164	모과나무	<i>Pseudocdonia sinensis</i> (Thouin) C.K.Schneid.	장미과	●		○	○	
165	이대	<i>Pseudosasa japonica</i> (Siebold & Zucc. ex Steud.) Makino	벼과	●				
166	석류나무	<i>Punica granatum</i> L.	석류나무과	●	○	○	○	○
167	붉은피라칸타	<i>Pyracantha coccinea</i> M.Roem.	장미과					
168	돌배나무	<i>Pyrus pyrifolia</i> (Burm.f.) Nakai	장미과					○
169	배나무	<i>Pyrus pyrifolia</i> var. <i>culta</i> (Makino) Nakai	장미과	●				○
170	붉가시나무	<i>Quercus acuta</i> Thunb.	참나무과	●				
171	상수리나무	<i>Quercus acutissima</i> Carruth.	참나무과	●		○	○	
172	졸참나무	<i>Quercus serrata</i> Thunb.	참나무과				○	
173	굴참나무	<i>Quercus variabilis</i> Blume	참나무과				○	○
174	영산홍	<i>Rhododendron indicum</i> (L.) Sweet	진달래과	●	○	○	○	○
175	황철쭉	<i>Rhododendron japonicum</i> f. <i>flavum</i> (Miyoshi) Nakai	진달래과					
176	캠퍼철쭉	<i>Rhododendron kaempferi</i> Planch.	진달래과					
177	진달래	<i>Rhododendron mucronulatum</i> Turcz.	진달래과	●	○		○	○
178	철쭉류	<i>Rhododendron pulchrum</i> Sweet	진달래과		○			

고택								용도								재배종
전남				전북		충남		식용	섬유용	약용	관상용	사료용	산업용	염료용	목재용	
백운동 정원	쌍산재	오현 고택	윤철하 고택	존재 고택	채원병 가옥	학인당	사운 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국명	학명	과명	고문헌 등재	고택			
					경남	경북	대구	
					박진사 고가	소우당	연정 고택	삼가헌
179	철쭉	<i>Rhododendron schlippenbachii</i> Maxim.	진달래과	●			○	
180	산철쭉	<i>Rhododendron yedoense</i> f. <i>poukhanense</i> (H.Lév.) Sugim.	진달래과		○	○	○	
181	붉나무	<i>Rhus javanica</i> L.	욱나무과	●		○		
182	욱나무	<i>Rhus verniciflua</i> Stokes	욱나무과	●				
183	아까시나무	<i>Robinia pseudoacacia</i> L.	콩과			○		
184	장미	<i>Rosa</i> cv.	장미과		○	○		
185	찔레꽃	<i>Rosa multiflora</i> Thunb.	장미과	●	○	○	○	
186	검꽃밭해당화	<i>Rosa roxburghii</i> Sweet	장미과					
187	흰해당화	<i>Rosa rugosa</i> 'Alba'	장미과					○
188	해당화	<i>Rosa rugosa</i> Thunb.	장미과	●				○
189	왕버들	<i>Salix chaenomeloides</i> Kimura	버드나무과			○		
190	버드나무	<i>Salix koreensis</i> Andersson	버드나무과	●		○		
191	용버들	<i>Salix matsudana</i> f. <i>tortuosa</i> Rehder	버드나무과					
192	능수버들	<i>Salix pseudolasiogyne</i> H.Lév.	버드나무과					
193	금송	<i>Sciadopitys verticillata</i> (Thunb.) Siebold & Zucc.	낙우송과					
194	백정화	<i>Serissa japonica</i> (Thunb.) Thunb.	꼭두서니과					
195	청미래덩굴	<i>Smilax china</i> L.	백합과	●	○			
196	회화나무	<i>Sophora japonica</i> L.	콩과	●	○	○	○	○
197	공조팝나무	<i>Spiraea cantoniensis</i> Lour.	장미과					
198	참조팝나무	<i>Spiraea fritschiana</i> Schneid.	장미과					
199	일본조팝나무	<i>Spiraea japonica</i> L.f.	장미과					
200	조팝나무	<i>Spiraea prunifolia</i> f. <i>simpliciflora</i> Nakai	장미과		○			
201	꼬리조팝나무	<i>Spiraea salicifolia</i> L.	장미과					
202	황금회화나무	<i>Styphnolobium japonicum</i> 'Aurea'	콩과				○	
203	매죽나무	<i>Styrax japonicus</i> Siebold & Zucc.	매죽나무과	●				○
204	수수꽃다리	<i>Syringa oblata</i> var. <i>dilatata</i> (Nakai) Rehder	물푸레나무과	●		○		

고택								용도								재배종
전남				전북		충남		식용	섬유용	약용	관상용	사료용	산업용	염료용	목재용	
백운동 정원	쌍산재	오현 고택	윤철하 고택	존재 고택	채원병 가옥	학인당	사운 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국명	학명	과명	고문헌 등재	고택		
					경남	경북	대구
					박진사 고가	소우당	연정 고택
205	라일락	<i>Syringa vulgaris</i> L.	물푸레나무과				○
206	낙우송	<i>Taxodium distichum</i> (L.) Rich.	낙우송과				
207	주목	<i>Taxus cuspidata</i> Siebold & Zucc.	주목과	●		○	○
208	서양측백나무	<i>Thuja occidentalis</i> L.	측백나무과		○		
209	측백나무	<i>Thuja orientalis</i> L.	측백나무과	●	○		
210	나한백	<i>Thujopsis dolabrata</i> (L.f.) Siebold & Zucc.	측백나무과				
211	피나무	<i>Tilia amurensis</i> Rupr.	피나무과				
212	비자나무	<i>Torreya nucifera</i> (L.) Siebold & Zucc.	주목과	●			
213	마삭줄	<i>Trachelospermum asiaticum</i> (Siebold & Zucc.) Nakai	협죽도과				
214	당종려	<i>Trachycarpus wagnerianus</i> Hort. ex Becc.	종려과	●	○		
215	느릅나무	<i>Ulmus davidiana</i> var. <i>japonica</i> (Rehder) Nakai	느릅나무과	●	○	○	
216	참느릅나무	<i>Ulmus parvifolia</i> Jacq.	느릅나무과				
217	모새나무	<i>Vaccinium bracteatum</i> Thunb.	진달래과				
218	블루베리	<i>Vaccinium corymbosum</i> L.	진달래과				
219	분꽃나무	<i>Viburnum carlesii</i> Hemsl.	인동과				○
220	불두화	<i>Viburnum opulus</i> f. <i>hydrangeoides</i> (Nakai) Hara	인동과	●		○	○
221	백당나무	<i>Viburnum opulus</i> var. <i>calvescens</i> (Rehder) Hara	인동과				
222	설구화	<i>Viburnum plicatum</i> Thunb.	인동과			○	
223	일본삼색병꽃나무	<i>Weigela coraeensis</i> Thunb.	인동과			○	
224	등	<i>Wisteria floribunda</i> (Willd.) DC.	콩과	●			
225	실유카	<i>Yucca filamentosa</i> L.	용설란과		○		
226	유카	<i>Yucca gloriosa</i> L.	용설란과		○		
227	초피나무	<i>Zanthoxylum piperitum</i> (L.) DC.	운향과	●			○
228	개산초	<i>Zanthoxylum planispinum</i> Siebold & Zucc.	운향과				
229	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Thunb.) Makino	느릅나무과	●		○	○
230	대추나무	<i>Zizyphus jujuba</i> var. <i>inermis</i> (Bunge) Rehder	갈매나무과	●		○	○

고택							용도							재배종
전남			전북		충남	식용	섬유용	약용	관상용	사료용	산업용	염료용	목재용	
백운동 정원	쌍산재	오현 고택	윤철하 고택	존재 고택	채원병 가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문헌

- 국립수목원. 2016. 가보고 싶은 정원 100. 포천: 국립수목원.
- 강민구. 2013. 유서(類書)에 나타난 조선 지식인의 화훼(花卉)에 대한 인식. 동방한문학, 56(0): 39-73.
- 강희안. 2000. 양화소록. 이병훈 역. 서울: 을유문화사.
- 광복희. 2013. 전주 한옥마을의 주택정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 김규섭, 이재근. 2014.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나타난 정원조영 연구 - 「이운지(怡雲志)」와 「상택지(相宅志)」를 중심으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1): 22-30.
- 김미옥. 2010. 조선시대 지피식물에 관한 연구: 옛 그림 및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서울.
- 김승민. 2014. 조선시대 화훼식물의 이용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2): 134-147.
- 김은수. 2016. 경상북도 전통주택 별당의 경(景) 디자인 원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진주.
- 김정문. 2016. A Study on Yaeryeonseol(爰蓮說) and its Appearances in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Spac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4(0): 9-18.
- 김희태. 2003. 존재 위백규의 선양활동과 문화유산의 활용. 전남도립대학교 논문집 Vol.5: 63-93.
- 문화재청. 2005. 한국의 전통가옥. 대전: 문화재청.
- 문화재청. 2006. 전통가옥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홍성조응식가옥). 대전: 문화재청.
- 문화재청. 2013. 한국의 전통가옥 41. 대전: 문화재청.
- 문화재청. 2014. 한국의 전통가옥 44. 대전: 문화재청.
- 박경자. 2015. 한국의 정원. 서울: 서교출판사.
- 배상선, 심우경. 1989. 조경식물의 상징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8(1): 281-313.
- 신상섭, 노재현. 2009. 「지봉유설(芝峯類說)」로 본 이수광(李水光)의 조경식물 인식 및 가치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1-10.
- 신상섭. 2011. 조선 후기 상류주택 사의당(四宜堂)의 공간체계와 조경문화.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2): 19-27.
- 양병범. 2014. 전남지방 전통주거건축의 외부공간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 이창숙, 여성희, 정소연. 2016.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제주도 전통식물의 통시적 연구. 한국자원식물학회지, 29(2): 225-234.
- 정민. 2015.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파주: 글항아리.
- 정재훈. 2005. 한국전통조경. 파주: 조경.
- 조창록. 2013. 문헌 자료를 통해 본 조선의 원예 문화. 동방한문학, 56(0): 73-96.
- 문화유산신문, <http://www.kchn.kr/>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장흥 위씨 대종회, <http://jhwi.or.kr/>
- 최성호 겸임교수(전주대학교 건축학과) 블로그, <http://blog.hani.co.kr/seongho0805/2776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